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2006中國流行語》

韓國語 翻譯 論文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韓中學科

邊慶姬

2007年 2月

《2006中國流行語》

(韓國語 翻譯 論文)

指導教授 宋呖宣

邊慶姬

이 論文을 通譯大學院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12月

邊慶姬의 通譯大學院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2006年 12月

목 차

1. 제1장 과학기술부문 유행어 -----1
 - 1) 선저우 6호(神六) / 1
 - 2) 페이권룽(費俊龍) / 2
 - 3) 네하이성(聶海勝) / 4
 - 4) 황우석(黃禹錫) / 6
 - 5) 타이탄(土衛六) / 7
 - 6) 딥 임팩트호(深度撞擊) / 8
 - 7) 호이겐스(惠更斯) / 8
 - 8) 우주 영웅(航天英雄) / 9
 - 9) 남극 빙모(南極冰蓋) / 11
 - 10) 유인 우주비행 정신(載人航天精神) / 12

2. 제2장 건강부문 유행어 -----13
 - 1) 수단 I(蘇丹紅) / 13
 - 2) 조류독감백신(禽流感疫苗) / 14
 - 3) 타미플루(達菲) / 14
 - 4) 말라카이트 그린(孔雀石綠) / 14
 - 5) 인체감염성 조류독감(人感染禽流感) / 15
 - 6) 번호표 암표상(號販子) / 16
 - 7) 과도한 진료비(看病費) / 16
 - 8) 송화강 수질오염(松花江水污染) / 17
 - 9) 쓰현 백신사건(泗縣疫苗事件) / 18
 - 10) 하늘을 찌르는 의료비(天價醫藥費) / 19

3. 제3장 출판부문 유행어 -----20
 - 1) 위화(余華) / 21
 - 2) 《화설중국(話說中國)》 / 22
 - 3) 댄 브라운(Dan Brown, 丹布朗) / 23

- 4) 《형제(兄弟)》 / 24
- 5) 《진강(秦腔)》 / 25
- 6) 추리소설(懸疑小說) / 26
- 7) 《중국을 변화시킨 거인 장쩌민(他改變了中國)》 / 27
- 8) 《해리 포터 6(哈利波特 6)》 / 28
- 9) 바진 사망(巴金逝世) / 28
- 10) 《천사와 악마(天使與魔鬼)》 / 29

4. 제4장 교육부문 유행어 -----31

- 1) 홍잔후이(洪戰輝) / 31
- 2) 입시이민(高考移民) / 35
- 3) 인쉐메이(殷雪梅) / 36
- 4) 장바오칭(張保慶) / 37
- 5) 천단칭(陳丹青) / 38
- 6) 햇빛입시(陽光高考) / 40
- 7) 가짜 2B연필(2B鉛筆) / 40
- 8) 新 토플시험(新托福考試) / 42
- 9) 사란진(沙蘭鎮) 종신초등학교(中心小學) / 43
- 10) 허웨이팡(賀衛方) / 44

5. 제5장 관광부문 유행어 -----45

- 1) 타이완 관광(赴臺旅游) / 45
- 2) 홍콩 디즈니랜드(香港迪士尼) / 46
- 3) 저가항공(廉價航空) / 46
- 4) 장성보호(長城保護) / 46
- 5) 선저우 문화여행(神州文化之旅) / 47
- 6) 호화 해외여행(深度游) / 48
- 7) 관광지 요금인상(景點漲價) / 48
- 8) 전자가이드(電子導游) / 49
- 9) 대장금 테마파크(長今村) / 50
- 10) 관광금지(休游) / 50

6. 제6장 인터넷 통신부문 유행어 -----52

- 1) 모바일 TV(手機電視) / 52
- 2) 모바일 페이퍼(手機報) / 53
- 3) 디지털 홈(數字家庭) / 53
- 4) 팟 캐스트(播客) / 55
- 5) 3C통합(3C融合) / 56
- 6) IPTV(IP電視) / 56
- 7) 디지털 미디어(數字媒體) / 57
- 8) 바이두 상장(百度上市) / 58
- 9) VLOG(沃客) / 59
- 10) 구글 어스(Google 地球) /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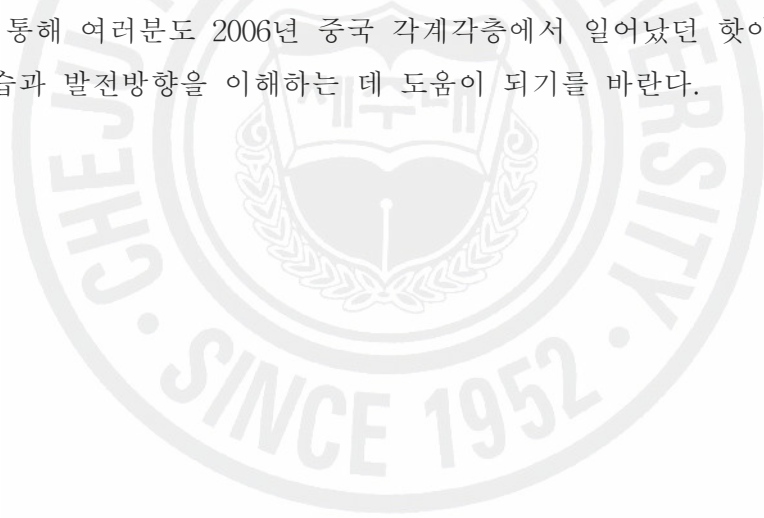


역자서문

한 나라를 이해하려면 그 나라의 언어는 물론 역사와 문화를 알아야 한다고 한다. 이미 흘러간 역사와 문화는 책을 통해 어느 정도 터득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그 나라의 시대상은 직접 보고, 듣지 않고서는 이해되기 어렵다.

21세기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중국을 주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제목은 “2006 중국유행어”이지만 흔히 말하는 유행어가 아닌, 2006년 중국을 뒤흔든 핫이슈만을 모아 현 중국의 사회흐름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역자는 사정상 원서의 제7장에서 12장만을 번역했다. 특히 “대장금”과 “황우석 교수” 사건이 링크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한류열풍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도 2006년 중국 각계각층에서 일어났던 핫이슈를 통해 현 중국의 모습과 발전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제1장 과학부문 유행어

서두 : 중국 대지를 빛낸 우주영웅과
조작 파문을 일으킨 “복제연구의 선구자”

① “선저우 6호” 유인 우주선의 성공적인 개선과 함께 우주비행 영웅 “페이진룽”과 “네하이성”은 위대한 “유인 우주비행 정신”을 세상에 알렸다. ② 중국 남극 탐사대가 인류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남극 빙모”를 세계 최초로 등반하는데 성공했다. ③ NASA의 “딥 임팩트”호가 템펠 1 혜성과 정확히 충돌했다. ④ 네덜란드 과학자의 이름을 딴 “호이겐스” 탐사선이 “타이탄”에 안착했다. ⑤ “황우석”이라는 이름이 극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 한국 “복제연구의 선구자”를 폭로, 풍자하는 내용의 꼬리표를 달고 있다.

과학부문 유행어 : 선저우 6호(神六), 페이진룽(費俊龍), 네하이성(聶海勝), 황우석(黃禹錫), 타이탄(土衛六), 딥 임팩트호(深度撞擊), 호이겐스(惠更斯), 우주 영웅(航天英雄), 남극 빙모(南極冰蓋), 유인 우주비행 정신(載人航天精神)

1) 선저우 6호(神六)

보도내용 : 선저우 6호 유인 우주선 발사성공
최초로 두 우주인 동시에 우주로 쏘아 올려

선저우호가 다시금 날아오르며 중국의 영광을 이어나갔다. 베이징 시각 10월 12일 9시 52분, 중국이 직접 개발한 유인 우주선 선저우 6호(神六號)가 주취안(酒泉) 위성발사센터에서 발사된 후 정확히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다. 선저우 6호의 이번 비행은 중국의 두 번째 유인우주선 비행이자, 최초로 두 우주인을 동시에 우주로 쏘아 올렸다. 후진타오(胡錦濤), 자칭린(賈慶林), 쑹칭홍(曾慶紅), 우관정(吳官正) 등은 베이징 우주비행통제센터에서 발사를 지켜보고 선저우 6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축하했으며, 원자바오(溫家寶), 리창춘(李長春), 뤼간(羅干) 등은 중국 유인 우주비행사업에 괄목할만한 공헌을 한 수많은 과학기술자들과, 간부, 직원, 그리고 해방군 전투지휘자들을 격려했다. 이들은 또 앞으로 더욱 분발하고

계획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이번 유인 우주비행이 원만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선저우 6호 유인우주선은 예정된 계획대로 두 우주인을 싣고 수일간 우주를 비행할 것이다. 뒤이어 비행을 마친 두 우주인 페이쥘룽(費俊龍)과 네하이성(聶海勝)은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중부에 있는 주 착륙장에 안착할 예정이다.

(발췌 : 2005년 10월 12일자 新華社)

2) 페이쥘룽(費俊龍)

보도내용 : 우주에서 돌아온 “중국의 용”

선저우 6호 우주비행사 페이쥘룽

긴장한 체격을 자랑하는 페이쥘룽(費俊龍)은 아직까지 이렇게 힘들고 더딘 텀블링을 해본 적이 없다. 더더군다나 343km상공에서 3분 동안 4번이나 351km를 오가야하는 이런 “고난도”, 고속 텀블링은 더욱 처음이다.

《서유기》에 나온 손오공은 한 번 재주를 넘으면 십만 팔천 리를 간다지만 이것은 신화 속 이야기일 뿐이다. 하지만 페이쥘룽은 이 연속동작으로 최초로 우주에서 재주넘기를 한 중국인으로 기록됐다.

2005년 10월 14일은 페이쥘룽이 우주에 진입한지 나흘째 되던 날이다. 16시 30분, 페이쥘룽은 두 손으로 선실 안에 있는 두 고정물을 손으로 받친 채 앞으로 돌진하며 우주에서 첫 앞 텀블링에 성공했다. 그리고 자신이 생겼는지 다시 연속해서 3회를 더 돌았다. 옆에서 이 모습을 촬영하던 네하이성(聶海勝)과 그는 서로를 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다소 서툴렀지만 이 네 번의 재주넘기는 TV앞에서 지켜보던 수억 중국인들에게 마치 거대한 용이 비약하는 듯 한 감동과 흥분을 전했다.

페이쥘룽은 이름에 있는 “용(龍)”자가 자신의 운명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을지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가 공군비행사시절에는 교통처럼 드넓은 하늘을 종횡무진 했었다면, 우주비행사로서 선저우 6호를 타고 우주로 날아오른 후에 이 “용”은 더욱 높이 날아올라, 용의 자손 중 최초로 “천궁”에서 우주생활을 체험한 인간으로 기록됐다.

그는 우주에서 장장 115시간동안 325만km가 넘는 거리를 비행했다. 그동안 그는 최초로 귀환선실에서 궤도선실로 진입했으며, 최초로 압력복을 벗고 작업복을 착용했다. 그리고 네하이성은 궤도선실에서 각종 과학연구를 완성시켰다.

농촌에서 도화지를 맨 채 학교에 다니며 화가를 꿈꿨던 유년시절부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영웅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은 끝없이 고도를 상승시키는 과정과 흡사했다.

그는 남다른 용기와 기술, 냉정한 두뇌로 32세에 공군 특수비행사로 발탁됐다. 그리고 이 남다른 재능 덕분에 그는 345km 높이의 우주에서 산책하듯 비행을 즐길 수 있었다.

중국 공산당 총서기이자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후진타오(胡錦濤)는 당 중앙,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와 온 국민을 대표해 그와 네하이성에게 격려와 축하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선저우 6호는 정상적으로 비행하고 있으며, 비행사들의 건강상태도 양호한 편이라며 총서기와 전 국민을 안심시켰다.

그의 자신감은 피나는 훈련과 학습에서 비롯됐다. 중국 최초의 우주인 양리웨이(楊利偉)는 페이전룽은 선저우 5호 첫 비행 선발과정에서 강화훈련에 참가한 비행사 5명 중 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수일을 우주에서 비행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선저우 6호는 비행사들은 거꾸로 서있기 훈련을 받는다. 즉, 고개를 밑으로 한 채 평평하게 누워 5박 6일을 버티는 훈련이다.

사람은 잠시만 물구나무를 서있어도 피가 아래로 쏠리면서 괴로워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5박 6일이라면 거꾸로 서지 않고 평범한 자세로 누워있기도 힘들 것이다. 거꾸로 서있으면 먹고 마시는 것조차 일종의 고통이다. 뭘 먹기만 하면 위가 거북하고, 목으로 넘긴 것들이 마치 위에서 쏟아져 나올 것 같기 때문이다.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제때 삼키지 않으면 바로 입에서 흘러나온다. 이런 훈련은 비행사들에게 심리적으로 엄청난 시련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첫째 날은 하루가 일 년 같고, 둘째 날은 조금씩 지겨워지기 시작하며, 셋째 날에는 종일 일어서고만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페이전룽은 놀랄만한 의지력으로 묵묵히 훈련을 견뎌냈으며, 마침내 순조롭게 전 과정을 통과했다.

TV에서 보면 페이권룽은 늘 비행수첩과 일지를 보고 있다. 하지만 40만 자에 이르는 이 비행수첩을 그는 일찌감치 가슴에 새겨두었다. 복잡한 비행단계와 조작용령 및 각종 응급대치법까지 수첩을 보지 않아도 줄줄 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의 꼼꼼함과 고집은 조교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다. 한 번은 훈련 조교가 이상 현상 때문에 귀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형태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조교가 5가지 답안을 준비한 것과 달리 그는 6가지 답안을 제시했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그의 답안이 더 완벽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월 17일 4시 44분, 선저우 6호가 무사히 네이멍구 초원에 착륙했다. 1시간 7분 후, 그는 웃음 가득한 얼굴로 착륙장에 있던 구조팀과 TV앞에서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던 수많은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5시간 후 환영 차 공항에 나온 차오강촨(曹剛川)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컨디션은 어떠냐는 질문에, 그는 통쾌히 손을 흔들며 “괜찮습니다”라고 말했다.

페이권룽의 말투는 이륙 전 언론에게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찌렁찌렁 울렸으며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모두를 감동시켰다.

(발췌 : 2005년 10월 18일자 新華社)

3) 네하이성(聶海勝)

보도내용 : “조국과 국민의 깊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선저우 6호 우주 비행사 네하이성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딸 네텐샹(聶天翔)의 평범하지만 따스한 생일축하노래를 들으며, 머나 먼 우주에서 41세 생일을 맞이해야 하는 네하이성(聶海勝)은 끝끝내 눈물을 흘렸다.

그는 올해 생일을 345km 상공의 우주에서 보냈다. 지구로 돌아온 그는 이번 생일은 생애 가장 특별했던 생일이었으며, 41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은 날이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아내와 딸아이는 물론 고향의 친인척들, 그리고 함께 비행했던 전우들과 조국 각지에서 얼굴도 모르는 국민들이 모두 그의

생일을 축하해주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구를 밟은 그의 첫 인사는 바로 “조국과 국민의 깊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였다.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소년이 만인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우주 비행사가 되기까지, 그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늘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

후베이(湖北) 짜오양(棗陽)에 있는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대가족들과 함께 성장기를 보냈다. 그는 8남매 중 여섯째였다. 가족들은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아껴가며 책을 좋아하던 그만큼은 공부를 시키려고 열심히 뒷바라지했다. 하지만 그가 14세가 되던 해 부친이 병환으로 세상을 뜨면서, 장남이었던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중단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강인하기 마련이죠. 하이성이 보기엔 연약해 보이지만 아주 튼튼하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잔병치레 한 번 없었죠.” 힘들었던 시절을 회상하며 올해 74세인 그의 모친 장진시우(張金秀) 씨는 발병 전 늘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난도 그의 꿈을 빼앗아가지는 못했다. 그는 목동시절 미래를 예견하는 듯 한 기묘한 꿈을 꾸곤 적이 있었다. “제 등에 커다란 날개가 자라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강인함과 고집이 있었기에 그는 결국 꿈을 이룰 수 있었다. 1984년 네하이성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공군비행대학(空軍飛行學院)에 입학했다. 그토록 바라던 전투기 조종사가 됐을 때 그는 모든 꿈이 이뤄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층 더 높은 꿈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중국 유인 우주선 프로젝트에서 제1세대 비행사를 모집했던 것이다.

당시 30여세였던 그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더 많은 노력과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성실함과 끈기는 18년간 논두렁을 뛰놀던 이농촌 청년에게는 자연스레 터득된 것이었다. 이런 생활은 그에게 지금이 바로 모든 고난을 끝내고 꿈을 이룰 때라고 속삭였다.

그날은 바로 2005년 10월 12일이었다. 장정(長征) 2호 F 로켓의 우렁찬 굉음과 함께 그는 전우 페이쥬룽과 우주로 날아올랐다.

5일 간 325km를 비행한 두 사람은 77번의 일출과 일몰을 감상했으며, 성공적으로 궤도선실과 귀환선실에 진입했다. 그리고 인간공학, 의학실험 및 궤도선실 장비조작 등 일련의 공간과학실험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두 사람은 모두 5번 잠을 자고 15번의 식사를 했으며, 가족과 통화를 하기도 했다.

비좁은 비행선 안에서 그는페이쥘롱과 마치 물고기처럼 궤도선실과 귀환선실 사이를 헤엄쳤으며, 그들이 촬영한 지구화면은 바로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5일 밤낮을 우주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듯 낭만적이거나 편안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우주에서 보내온 그의 미소가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많은 위안이 됐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2년 전 그가 양리웨이와 최초의 우주 비행사팀 멤버로 등장했을 당시, 그의 밝고 맑은 미소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었다.

그리고 무사히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이 듬직한 우주 비행사는 다시금 예전의 그 맑은 미소로 중국 우주 비행사와 우주 비행사업에 관심을 보여준 사람들의 가슴에 벽찬 감동을 전했다.

(발췌 : 2005년 10월 18일 新華社)

4) 황우석(黃禹錫)

보도내용 : 황우석 “배아줄기세포” 조작 파문

한국 언론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는 지난 주 “황우석 배아줄기세포 조작” 파문관련 유전자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원회는 유전자분석결과 황우석 교수가 올해 《사이언스》지에 게재한 논문에서 11개의 배아줄기세포 중 이미 발표된 9개 외에도 나머지 2개 역시 가짜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22일 검사기관 세 곳에 황우석 교수가 말한 2번과 3번 “배아줄기세포” 유전자분석을 의뢰했다. 그리고 24일 1차 검사결과가 나왔다. 검사결과 이 두 개의 “배아줄기세포”는 환자의 체세포를 복제해 배양된 것이 아니라 미즈메디병원에 보관된 냉동수정란 줄기세포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위원회는 또 황우석 교수가 올해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발표할 당시에도 배양에 성공한 “배아줄기세포”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발췌 : 2005년 12월 27일 人民日報)

5) 타이탄(土衛六)

보도내용 : 타이탄서 해안선 발견

미국의 토성 탐사선 “카시니(卡西尼, Cassini)”가 최근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土衛六, Titan)을 순회하던 중, 이 위성 남반구에서 해안선으로 추정되는 형상을 포착해 보내왔다. 관련 과학자들은 지난 16일 이는 타이탄 남반구에 한때 물이 있었거나, 지금도 액체상태의 해양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카시니”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NASA 제트추진연구소(JPL)는 16일 “카시니”가 9월 7일 찍은 레이더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을 보면 타이탄 남반구에 위치한 길이 1,800km, 너비 170km의 지역이 구불구불한 선으로 명암이 구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명암이 분명한 이 지대에서 해만(海灣)과 흡사한 지형이 몇 곳 발견됐으며, 구불구불한 이 선은 해안선일 가능성이 크다.

“카시니” 레이더 사진 전문가 스티브 월(Steve Wall)은 이 사진은 타이탄에 액체상태의 해양이 존재한다는 설을 뒷받침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며, “카시니”가 촬영한 지대는 타이탄에서도 액체상태거나 표면이 축축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타이탄에는 멀지 않은 과거, 또는 지금도 액체가 땅에서 흘러나오거나 “큰 비”가 내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예측했다.

지금까지 “카시니”가 보내온 사진들을 종합해본 과학자들은 타이탄의 일부 지역에 수로가 밀집돼있다고 확신했다. 그중에서도 길고 구불구불한 수로는 지하 “샘구멍”에서 액체가 보충됐다는 증거이며, 짧고 조밀한 수로는 “비”로 액체가 보충된다는 것이다. “비”든 “샘구멍”이든 중요한 것은 강과 해양에 보충되는 물질이 바로 메탄과 같은 액체 탄화수소라는 점이다.

천문학자들은 타이탄은 생명체가 나타나기 전 지구의 상태와 흡사하다며, 다만 온도가 너무 낮은 데다 액체라고는 액체 탄화수소로 구성된 해양과 강밖에 없어서 자주 “메탄비”가 내릴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 가설은 “카시니”가 최근 몇 차례의 사진을 보내오기 전까지는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발췌 : 2005년 9월 19일 科技日報)

6) 딥 임팩트호(深度撞擊)

보도내용 : “딥 임팩트”호 혜성과 충돌

미국 동부시각 7월 4일 새벽 1시 52분, 베이징 시각으로는 7월 4일 13시 52분경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딥 임팩트(深度撞擊, Deep Impact)”호가 무게 370kg의 충돌체 임팩터를 쏘아 올렸다. 임팩터는 하늘을 가르는 포탄처럼 과학자들의 예상한 시각에 정확히 워싱턴만한 템펠 I 혜성과 충돌했다. 우주에 보석처럼 눈부신 “화염쇼”를 연출하며 인류 최초의 “인공천체” 충돌실험은 이렇게 성공리에 끝났다.

실험실 과학자들은 “딥 임팩트 충돌계획”의 목적은 템펠 I 혜성의 지표아래 물질을 조사해, 태양계 생성의 비밀을 푸는데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오늘밤부터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동안 지상통제센터는 다량의 영상 데이터를 확보해, 과학자들이 이번 우주충돌에 담긴 의미를 찾으려 노력할 것이다.

(발췌: 2005년 7월 5일자 人民日報)

7) 호이겐스(惠更斯)

보도내용 : 호이겐스호 타이탄의 비밀을 벗기다

유럽우주기구(ESA)가 개발한 “호이겐스호(惠更斯, Huygens)”가 전 세계 과학자들의 관심 아래 7년간의 광활한 우주항해를 마치고 마침내 타이탄 표면에 안착했다. 이번 탐사로 얻게 되는 사진과 다양한 데이터들은 인류에게 타이탄 연구에 값진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작년 크리스마스 당일 호이겐스호는 탐사선 카시니호를 분리시키고 타이탄을 향한 400만km의 긴 여정에 돌입했다. 그리고 20일 간의 대장정 끝에 호이겐스호는 베이징 시각 14일 18시 13분경 타이탄 상공 1,270km에 위치한 목표지점에 도착, 장착된 착륙프로그램에 따라 타이탄 대기권 진입하기 시작했다.

3분 만에 착륙프로그램에 돌입한 호이겐스호는 시속 1만 8천km로 비행하던 속도를 1,400km로 낮추고, 구름층에 진입한 후에는 순서에 따라 낙하산을 펼치고 속도를 300km로 낮췄다. 그리고 타이탄 상공 160km 지점부터는 장착된 각종 과학탐사장비가 작동되면서 타이탄 표면사진과 대기를 분석한 각종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수집된 데이터 자료들은 토성 궤도 탐사선인 카시니호에 보내지며, 카시니호에서는 이 데이터들을 지구로 전송하기 위한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타이탄 상공 120km 지점에 도착하자 호이겐스호는 마지막 소형 낙하산을 펼치며 타이탄에 착륙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에 돌입했다.

호이겐스호가 착륙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모두 2시간 15분이었다. 그동안 장착된 탐사장비들은 타이탄 대기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수집했다. 그중에서 “대기층 질량분석기”는 대기성분을, “DISR(Descent Imager/Spectral Radiometer)”는 기체 메탄사진과 하강하는 모습을 담은 홀로그래피를 촬영하면서 “타이탄” 표면성분을 분석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다른 장비들이 수집한 “타이탄”의 풍력, 온도, 기압, 전기장, 자기장 등의 데이터와 함께 카시니호를 거쳐 지구로 보내진다.

에너지의 한계 때문에 호이겐스호는 착륙 후 90분 만에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소리 없이, 그리고 영원히 타이탄 표면에 잠들었다. 하지만 수집된 지표의 특징, 대기환경 등 각종 과학적 근거들은 ESA 과학자들이 앞으로 몇 년간 “소화”해야 할 정도로 충분하다.

(발췌 : 2005년 1월 17일자 科技日報)

8) 우주 영웅(航天英雄)

보도내용 : 선저우 6호의 우주 영웅들 당당히 개선하다

지난 17일 새벽 4시 33분, 선저우 6호 귀환선실이 네이멍구(內蒙古) 쓰즈왕치(四子王旗) 주착륙장에 안착했다. 115시간 넘게 우주를 비행한 비행사 페이쥬룽(費俊龍)과 네하이성(聶海勝)이 비행선에서 내리며, 중국 최초로 진정한 유인 우주비행실험이 원만한 성공을 거뒀음을 알렸다.

중국공산당 중앙과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는 두 사람의 무사귀환을 축하하는 전보를 보냈다.

5일 간 약 325km를 비행한 두 사람은 77번의 일출과 일몰을 감상했으며, 성공적으로 궤도선실과 귀환선실에 진입했다. 그리고 인간공학, 의학실험 및 궤도선실 장비조작 등 일련의 공간과학실험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두 사람은 모두 5번 잠을 자고 15번의 식사를 했으며, 가족과 통화를 하기도 했다.

17일 새벽 3시경, 우방귀(吳邦國), 자칭린(賈慶林), 황궈(黃菊), 우관정(吳官正)

등의 당지도자들은 베이징의 우주비행통제센터에서 귀환상황을 지켜봤다.

5시 40분 경, 하얀 우주복을 입은 두 비행사가 헬리콥터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대기와의 마찰 때문에 아직도 열기가 남아있는 귀환선실에서 나왔다. 마침내 조국의 땅을 밟은 두 사람은 환영객들에게 인사했다.

5시 45분, 유인 우주비행 프로젝트 총책임자인 천빙더(陳炳德)는 선저우 6호 유인 우주선이 무사히 귀환했으며, 두 비행사 페이쥘룽과 네하이성의 비행선에서 내림과 동시에 이번 유인 우주비행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선포했다.

뒤이어 뜨거운 환호 속에 우방궈 위원장은 중국공산당 중앙과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가 보낸 축하전보를 낭독했다.

9시 28분, 막 지구로 돌아온 페이쥘룽과 네하이성은 전용기를 타고 네이멍구 착륙장을 떠나 베이징에 도착했다. 공항에 마중 나온 차오강촨(曹剛川)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두 영웅의 손을 힘껏 잡으며, 당 중앙과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를 대신해 우주에서 개선한 두 우주 영웅에게 환영의 뜻을 전했다.

10시 17분, 페이쥘룽과 네하이성이 베이징 우주비행센터에 도착했다. 유인 우주비행 프로젝트 지휘팀은 성대한 환영식을 준비했으며, 민족 전통복을 입은 5천여 명의 각계 인사들과 부대원들은 두 영웅의 귀환을 열렬히 환영했다.

항톈로(航天路)에 걸려있던 “영웅 비행사들의 개선을 환영합니다.”, “쥘룽, 하이성, 고향에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진 현수막들은 길 양쪽을 가득 메운 환영 인파의 진심어린 환호와 기쁨의 미소와 어우러져 뜨거운 물결을 이루었다.

우주비행센터 동문에서 하차한 두 사람에게 여군 두 명이 아름다운 화환을 전달했다. 환영 인파를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한 두 사람은 뒤이어 정문에 마련된 오픈카를 타고 항톈로를 따라 우주 비행사 아파트로 향했다. 공항에 마중 나왔던 선저우 6호 비행임무제대 부원인 징하이펑(景海鵬), 류보밍(劉伯明), 디즈강(翟志剛), 우제(吳杰) 등도 뒤따라 오픈카에 올랐다.

유인 우주 비행사들을 태운 차량을 따라 페이쥘룽과 네하이성은 길 양쪽 군중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대신했다. 2km도 되지 않는 항톈로를 지나는데 두 사람은 거의 20분을 소요했다.

“우주 비행사들의 동일한 착륙점은 중국 우주비행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출발점이다.” 여러 차례 선저우의 귀환임무를 책임졌던 쑤이치성(隋起勝)은 “양리웨이(楊利偉)가 우주를 향한 중국인들의 천년의 꿈을 이뤘다면, 페이쥘룽과 네하이성은 무사귀환은 중국 우주비행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발췌 : 2005년 10월 17일자 新華社)

9) 남극 빙모(南極冰蓋)

보도내용 : 인류 최초로 남극 내륙 빙모 최고점에 오르다

중국이 인류 최초로 남극 내륙 빙모 최고지에 올랐다. 베이징 시간 18일 3시 16분, 1주일이 넘게 측량과 대조를 거치며 남극 내륙 빙모를 1,200km가량 탐험한 중국 남극 내륙 빙모 쿤룬(昆侖)탐사대가 남극 빙모 최고점을 발견했음을 확인했다. 그곳은 바로 남위 80도 22분 00초, 동경 77도 21분 11초, 해발 4,093미터 지점이었다.

1억만년 동안 혹독한 추위에 외로이 서있던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극지” 남극 빙모 Dome-A에 마침내 인류의 발자취를 남기게 된 것이다. 중국은 이로써 인류가 남극과 자연을 인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공헌을 하게 됐다고 자부하게 됐다.

탐사대는 계획에 따라 이 최고점에 임시관측소를 설치해 기후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아이스 레이더를 이용해 빙하두께를 측정하는 한편, 고정밀도 GPS 위치측정과 종합적인 기상관측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150~200미터 아래의 빙심을 뚫어 내륙캠프 설치지점을 조사할 것이다.

동남극 빙모는 Dome C, Dome B, Dome A, Dome F가 얼음산맥을 이루고 있다. 그중에서도 동남극 중심에 위치한 Dome A는 이 산맥의 최고봉이자 빙모의 최고점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직까지 탐사대의 발길이 닿지 못한 곳이다.

과학자들은 Dome A는 남극 빙모의 빙심을 시추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이상지이며, 설빙의 현대기후환경과 대기 및 기상관측을 관측할 유일무이한 “과학 탐사기지”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Dome A의 과학적 의의는 지구상의 그 어떤 과학 탐사기지도 대처할 수 없는 것이다. Dome A 지역은 평류층(平流層, 성층권과 중간층을 합쳐 부르는 말)의 대기가 축적된 곳으로, 이곳의 빙모는 원시시대부터

축적된 것이어서 지구의 기후와 대기환경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고라고 할 수 있다. Dome A 지역은 또 남극의 추위가 시작되는 중심에 놓여있어 조만간 지구표면의 최저온도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췌 : 2005년 1월 18일자 新華社)

10) 유인 우주비행 정신(載人航天精神)

보도내용 : “선저우 6호”의 성공을 축하하며 유인 우주비행 정신을 고취하자

중국공산당 중앙과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선저우 6호 유인 우주선의 성공을 축하하는 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후진타오(胡錦濤)주석은 중요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소강사회¹⁾(小康社會) 건설과 사회주의의 현대화를 이루려면 반드시 유인 우주비행 정신을 고취해야 한다며, 이로서 전 민족의 자신감과 자부심을 강화시키고 전 민족의 지혜와 힘을 모아 발전의 기회를 잡는 한편, 직면한 각종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승리하는 길에 놓인 어렵고 힘든 역경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사업에 끊임없이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밖에도 그는 위대한 사업은 위대한 정신을 낳으며, 위대한 정신은 위대한 사업의 추진력이 된다고 말했다. 중국이 유인 우주비행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13년간, 수많은 우주비행 종사자들은 자신의 사명과 기대를 잊지 않고, 어떠한 역경과 도전 속에서도 투철한 희생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인 우주비행 정신을 창조해왔다. 이 정신은 애국심과 조국을 빛내겠다는 강한 신념, 어떠한 고난도 용감히 극복하겠다는 진취정신, 과학연구에 몰두하는 성실한 태도, 일심협력하겠다는 단결력과 명예와 상관없이 묵묵히 희생하는 인품에서 나타난다. 유인 우주비행 정신은 “양탄일성(兩彈一星, 중국이 개발한 미사일과 원자탄, 인공위성)“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며, 애국심으로 대표되는 민족정신과 개혁과 혁신으로 대표되는 시대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다.

(발췌 : 2005년 11월 26일자 新華社)

1) 소강사회(小康社會) : 부유한 상태는 아니나 의식주에는 부족함이 없는 사회

제2장 건강부문 유행어

서두 : 가금 및 인체감염 조류독감, 유색색소공포 급증

중국 과학연구원이 “조류독감백신”을 개발하는데 성공하긴 했지만 “인체감염성 조류독감”예방 비상령은 계속되고 있다. ① 붓순나무 종자시장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붓순나무에 함유된 시키믹 산(shikimic acid)이 조류독감 백신인 “타미플루”의 핵심성분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② “수단 I”파동 이후 사용 금지된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이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다. ③ “과도한 진료비”, 하얼빈에서 발생한 “하늘을 찌르는 의료비”사건이 전국을 뒤흔든 가운데, ④ 대다수 병원 입구에서는 “번호표 암표상”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⑤ “송화강 수질오염”으로 인해 하얼빈시 전 지역에 단행된 4일간의 단수사태는 중국의 환경보호 문제에 경종을 울렸다.

건강부문 유행어 : 수단 I(蘇丹紅), 조류독감 백신(禽流感疫苗), 타미플루(達菲), 말라카이트 그린(孔雀石綠), 인체감염성 조류독감(人感染禽流感), 번호표 암표상(號販子), 과도한 진료비(看病貴), 송화강 수질오염(松花江水污染), 하늘을 찌르는 의료비(天價醫藥費)

1) 수단 I(蘇丹紅)

보도내용 : 국가품질검사국, 30개 기업 88종 식품에서 “수단 I” 검출

중국 국가품질검사국은 어제 저녁 “수단 I(蘇丹紅, Soedan I)”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1차 실태조사에서 핫소스 원료 및 생산기업 30곳에서 88종의 “수단 I”이 검출됐으며, 검출되지 않는 기업 중 60곳은 핫소스 품질허가서를 받은 상태였다. 이 60개 기업의 97종 샘플은 국가품질검사국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도 “수단 I”이 검출되지 않았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첨가제 생산기업은 화학염료인 “수단 I”을 식용첨가제인 고추 적색색소로 속여 핫소스 생산기업에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가 품질검사부문은 5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그 원인조사에 나섰다. 적발된 기업에게는 생산과 판매금지조치를 내리는 반면, “수단I” 생산기업

의 감독을 강화해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발췌 : 2005년 4월 6일자 新民晚報)

2) 조류독감백신(禽流感疫苗)

보도내용 : 신형 고병원성 조류독감 백신 개발 성공

농업부는 지난 14일 중국농업과학원 하얼빈 수의연구소 연구진들이 4년간의 연구 끝에 세계 최초로 H5N1-A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뉴캐슬병에 효과적인 백신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 신형 백신은 기존의 백신에 비해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1차 면역만으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뉴캐슬병 등 양대 가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안전하고 사용이 편리하다. 셋째, 다른 가금류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넷째, 생산비용이 저렴해 예방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발췌 : 2005년 10월 15일자 人民日報)

3) 타미플루(達菲)

보도내용 : 조류독감 바이러스 진화, 타미플루 효능 감퇴

스위스 로슈사가 독점생산 하는 “타미플루(達菲, Tamiflu)”는 지금까지 조류독감의 유일한 치료제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서 변형됨에 따라 이 약물의 치료효과는 대폭 감소됐다. 영국의 가디언은 22일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게재된 최신 보도를 인용, 현재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감염자 인체 내에서 변형되기 시작했으며, 변형된 바이러스는 “타미플루”에도 강한 내성을 보이고 있어 이 치료제의 효과가 급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 보도는 또 전 세계에 새로운 항 조류독감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췌 : 2005년 12월 23일자 北京青年報)

4) 말라카이트 그린(孔雀石綠)

보도내용 : 어류시장에서 “수단Ⅱ” 발견, 농업부 철저단속에 나서

“수단Ⅱ”로 불리는 불허용 가축약 “말라카이트 그린(孔雀石綠, Malachite

green)”이 일부 수산물시장에서 사용되다 적발됐다. 지난 7월 7일, 농업부의 긴급 발표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의 불법 판매 및 사용행위가 적발됐다고 한다.

발표에 따르면 “말라카이트 그린”은 영국에서 최초로 출현했다. 지난 6월 5일 영국 식품기준청(FSA)은 한 슈퍼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성분이 발견됐다고 밝히고 “말라카이트 그린”은 인체에 막대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화학제제로 어떠한 어류에서도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나아가 어떠한 식품에서도 발견돼서는 안 되는 물질이라며 식품안전에 적신호를 알렸다.

사건 후 중국에서도 일부 지역 수산물시장을 조사한 결과, 허난, 후베이 등의 수산물 주요 생산지에서 양식과 운송과정에서 비늘보호와 수명연장을 위해 빈번히 “말라카이트 그린”으로 차량과 어장을 소독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충칭시 사법당국은 모 수산물 거래시장에서 이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자라 600백여 마리를 발견했으며, 일부 지역 뱀장어 제품에서도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됐다.

어제 베이징시 식품안전팀은 빠른 시일 내에 전시의 어류시장을 대상으로 샘플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말라카이트 그린”이 함유된 생선의 육안 식별법을 알아보자.

첫째, 비늘 외상의 착색여부를 알아본다. 외상을 입은 생선을 고농도의 “말라카이트 그린”용액에 담그면 선명한 푸른 녹색을 띤다.

둘째, 지느러미 외상의 착색여부를 알아본다. 정상적인 생선의 지느러미는 백색이다. 하지만 “말라카이트 그린”용액에 담갔던 지느러미는 쉽게 착색될 수 있다.

셋째, 만약 온몸에서 광택이 날 경우 조심해야한다.

(발췌 : 2005년 7월 12일자 新民晚報)

5) 인체감염성 조류독감(人感染禽流感)

보도내용 : 위생부, 후난과 안후이에서 인체감염성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견

중국 위생부는 지난 11월 6일 22시 경, 최근 내륙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인 H5N1에 감염된 환자 두 명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그 중 한 명은 후난 사람, 다른 한 명은 안후이 사람이었다.

위생부는 이미 상술한 사례를 세계보건기구(WHO)와 홍콩, 마카오, 타이완 지역 및 일부 국가에 통보한 상태다.

(발췌 : 2005년 11월 16일자 新華社)

6) 번호표 암표상(號販子)

보도내용 : 병원, 판치는 “번호표 암표상” 막을 길 없어...

수십 년간 베이징에 있는 큰 병원 앞을 서성이던 “번호표 암표상(號販子)”들이 요즘은 조직적인 대형 “전문” 범죄조직으로 발전했다. 이들이 거액을 받을 수 있는 전문의의 진료번호표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통에, 그 대책이 시급한 상태다.

세허병원(協和醫院) 전문의들은 재진과 당일 진찰 스케줄에 따라 때로 추가번호표를 발급하고 있는데, 환자들은 이 추가번호표만 있으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접수창구에만 매달려 있던 “번호표 암표상”들이 이런 호기를 놓칠 리 없다. 이들은 전문의의 필체를 도용해 임시번호표를 만들어 암거래를 일삼아 왔다. 이에 병원측은 전문의들에게 임시번호표에 자신의 이름과 사원코드가 새겨진 인장을 찍도록 했지만, 이 역시 이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바로 전문의들의 서명용 인장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진찰실 주임 예위친(葉玉琴) 씨는 이것 때문에 전문의들의 서명인장에 몰래 “손”을 써 접수 직원들이 한눈에 진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했지만, 이에 굴할 암표상들이 아니었다. 직원으로 위장해 추가번호표를 받거나, 재진환자는 병례만 가지고도 직접 접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환자 병례를 훔치는 등의 수법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 병원 면역과 탕푸린(唐福林) 교수는 심지어는 모 “번호표 암표상”은 그에게 손을 잡자는 제의까지 해왔었다고 밝혔다.

(발췌 : 2005년 8월 11일자 人民日報)

7) 과도한 진료비(看病貴)

보도내용 : 약값 인하 효과미비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과도한 진료비현상 분석

이 기간 개최된 중국 약사주대회(藥師周大會)에서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저우왕쥘(周望軍) 가격국 부국장은 가격관리부문에서 지속적으로 다량의

약품 소매가를 낮춰오곤 있지만 현재 사회 각계에서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도한 진료비(看病費)와 고가의 약값” 문제는 사실상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중국 정부가 가격을 정한 약품은 약 2,400여종으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체 약품수의 20%, 시장 매출액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 가격관리부문은 모두 17차례의 가격인하조치를 통해 1,100여 종의 약품 소매가를 낮춰왔으며, 그 가격인하 총액만 해도 무려 350여 억 위안에 달한다. 2001년 이후 지속적인 가격인하와 약품 공개입찰 구매제도의 실행으로 중국 약품시장 가격수준은 4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 왔다.

저우 부국장은 또 이렇게 각 부문의 대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한 상태로, 국민들의 “과도한 진료비, 고가의 약값”문제도 사실상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일부 문제가 잔재하고 있다고 토론했다.

정부가 가격을 정한 일부 약품가격이 아직 제대로 가격인하를 이루지 못했다. 수년간 다량의 약품 소매가를 지속적으로 낮춰오고 있긴 하지만, 국가 발개위가 각종 복잡한 이익관계균형과 시장안정 확보, 각급 의료기구의 정상운동을 위해 단계적인 가격인하방식을 취하고 있어, 국가가 가격을 정한 일부 약품가격은 여전히 하늘로 치솟고 있다.

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진 약품가격도 치솟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진 약품가격이 현저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심지어는 배로 뿔 품목도 보이고 있어 가격거품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의료기기 가격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특히 고가의 의료용 소모품의 경우 실가치를 부쩍 뛰어넘고 있으며, 중간상들의 횡포로 공장도가격의 수배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무분별한 의료서비스 비용문제 역시 진정되지 않고 있다. 요즘 무분별한 의료서비스 비용과 진찰문제가 일정 정도 사그라지긴 했지만, 현행 체제와 시스템 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불법으로 독자적인 항목을 개설하거나 항목을 나눠 중복요금을 받는 등의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어, 환자들의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종사자들의 부패를 초래하고 있다.

(발췌 : 2005년 10월 31일자 新華社)

8) 송화강 수질오염(松花江水污染)

보도내용 : 쑹화강 수질오염 적신호, 하얼빈 4일간 단수 단행

11월 21일과 22일, 하얼빈시 인민정부는 두 가지 단수계획을 공고했다. 이 공고는 2005년 11월 13일, 중국 중국석유화학공사(CNPC) 지린화학공장에서 발생한 벤젠폭발사고로 쑹화강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서가 현재 쑹화강 하얼빈 시내 수질에서 이상이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상류 수돗물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함에 따라, 22일 20시부터 시정부는 급수를 잠시 중단할 예정이며, 단수기간은 약 4일이 될 것(구체적인 단수시간과 재급수 시간은 추후 통보)이라고 발표했다. 11월 22일 저녁, 하얼빈시 인민정부는 새 공고문을 통해 23일 0시부터 전 시내의 수돗물 급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이 대규모적이고 장시간에 걸쳐 단행된 단수사태는 하얼빈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발췌 : 2005년 11월 23일자 人民日報)

9) 쓰현 백신사건(泗縣疫苗事件)

보도내용 : 안후이성 쓰현 A형 간염백신사건 발생

안후이(安徽) 쓰현(泗縣) 다좡진(大庄鎮)의 백여 명의 학생들이 A형 간염 백신을 접종받은 후 이상증세를 나타내 우려를 사고 있다. 현재 안후이성 식약품 감독관리국(食品藥品監督管理局)과 보건청은 대책팀을 파견해 현지에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6월 16일에서 17일 사이, 쓰현 다좡진 위생방역보건소는 이 마을 초등학교와 중학생 2,500명에게 A형 간염 백신을 접종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121명이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 한 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심각한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 학생들은 두통과 가슴이 답답하거나 기력저하 등의 증상을 비롯해 심각할 경우 호흡곤란, 일시적인 마비, 심근손상증세까지 호소하고 있다.

사건발생 후 쓰현 보건 당국은 이상증세를 보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치료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남아있던 문제의 백신을 모두 수거했다. 조사에 따르면 다좡진 보건소가 구입한 4천 개의 A형 간염 백신은 모두 저장(浙江)성 푸캉 생물제약회사(普康生物製藥有限公司)에서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수거된 백신 샘플은 모두 중국 약품생물제품검사소로 보내졌으며, 전문가 25명이 저장 항

저우로 파견돼 푸강회사의 백신 생산, 판매현황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고 있다.

(발췌 : 2005년 6월 28일자 人民日報 해외판)

10) 하늘을 찌르는 의료비(天價醫藥費)

보도내용 : 550만 위안 의료비의 비밀,
유가족 하늘을 찌르는 의료비 명세서 공개

70여 세의 퇴직자 왕윈후이(翁文輝) 옹은 생전에 하얼빈 의대 제2임상의대 심장외과 중환자실(이하 ICU)에서 2개월 간 입원했다. 그 결과 의료비로 수백만 위안이라는 거액이 빠져나갔다. 대체 무슨 치료기를 받았기에 이렇게 거액의 돈을 순식간에 “삼켜버린” 걸까? 다음은 하늘을 찌르는 의료비의 피해자인 왕윈후이 씨의 장남이 신화사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아버님이 입원하셨을 때 ICU에 뵈러 갔었는데, 절 보시더니 다짜고짜 “날 죽일 셈이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땐 이해가 안 됐는데 병원측에서 내민 고액 청구서를 보고나서야 모든 게 분명해지더군요.

아버님은 올 5월 18일 하얼빈 제2임상의대에 입원하고 종양과에서 화학치료를 받다 호흡곤란을 일으켜 6월 1일 ICU로 옮겨졌는데, 8월 6일 결국 숨을 거두셨어요. 그런데 ICU 입원비만 해도 139만 위안,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별도로 구입한 약값도 400만 위안이 넘었죠. 다행히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그 역시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청구서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대다수 항목이 실제와 달랐고 어떤 것들은 황당하기까지 했죠.

이런 의구심 때문인지 병원측은 조사팀을 만들어 아버님의 1일 의료비 명세서와 의사의 처방전을 대조 확인한 뒤, 《환자 왕윈후이 본 병원 입원기간에 관한 1차 조사》를 작성해 약품, 화학검사 및 수술재료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했어요.

병원측에서 제출한 《1차 조사》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는데요.

첫째는 과다 청구였어요. “입원실 화학검사조사결과(명세표)”를 보면 처방전에는 2,199회라고 기록돼있는데 보고서에는 1,902회, 의료비 청구서에는 2,030회라고 써있었죠. “2030-1902=128”이니까 결국 병원측이 128회 비용을 더 받은 셈이죠. 그 중에서 신장기능검사는 처방전에는 156회, 보고서에는 144회, 의료비 청구

서에는 228회라고 써있었으니까 “228-144=84”니 84회를 더 받은 셈이지만, 병원 측은 “비고란”에 겨우 3회만을 더 받았다고 적었더군요. 게다가 병원측이 제시한 다른 화학검사에 관한 보고서에는 “검사와 보고서에는 다양한 검사항목이 수록돼있다. 그 중 신장기능검사는 청구서에는 27회×4(항목)=108회라고 나와 있지만, 보고서에는 27회밖에 없었다.”라고 기록돼있어 내부적으로도 모순이 있음을 알 수 있었죠.

둘째는 무분별한 청구예요. “혈액은행항목(명세표)”을 보면 PH형 혈액검사와 혈소판 교차테스트(cross-matching) 등 11개 항목은 처방전이나 화학검사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도 않는데 무려 895회나 비용을 받았더군요. 또 “입원실 화학검사조사결과(명세표)”에 나온 이상 백혈구형태와 이상 적혈구형태 등 5가지 항목도 처방전이나 화학검사 보고서에 없는데도 18회나 받았더군요.

셋째는 중복검사예요. 아버님은 입원기간동안 화학검사를 2,925회나 받아 하루 평균 44회나 받으신 걸로 나왔어요. 게다가 당뇨병도 없으셨는데 혈당검사(비용)가 565회로 하루 평균 거의 9회를 받으셨죠.

<사건요약>

고회를 넘긴 왕원후이 씨는 올해 5월 18일 하얼빈 의과대학 제2임상의대에 입원, 6월 1일 중환자실(이하 ICU)로 옮겨진 뒤 8월 6일 사망했다. 입원해있던 두 달여 동안 550만 위안이 넘는 돈을 소모했지만 이렇게 하늘을 찌르는 의료비도 이미 고인이 된 생명을 “되사울” 수는 없었다.

왕원후이씨의 장남 왕창(翁强) 씨는 베이징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T세포 암을 앓던 그의 부친은 화학치료 중 호흡곤란으로 ICU로 옮겨졌다고 설명했다. 청구된 550여만 위안은 입원비 140만 위안과 별도 구입한 의약품값 400위안을 합산한 것으로, 부친 사망 후 의료비 명세서를 조사한 결과 다량의 의료비가 새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발췌 : 2005년 12월 6일자 新華社)

제3장 : 출판부문 유행어

서두 : 2005년, 장편소설 풍년

2005년은 장편소설의 풍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① 위화의 《형제》는 한 편의 “살아있는” 역사라는 극찬을 받고 있으며, ② 자핑아오(賈平凹)의 《진강》은 중국의 농촌을 생생하게 그린 필독서로 여겨지고 있다. ③ 또한 16부작 대형 중국 역사문화백과사전서인 《화설중국》 역시 전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④ 《천사와 악마》 등의 추리소설들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⑤ 하지만 《해리 포터 6》이 전 세계에 동시 출판됨에 따라 해리 포터 열풍이 전국을 뒤 흔들었다. ⑥ 2005년 초, 중국 현대문학의 거장 바진이 타계했다. 독자들에게 진실하게 다가갔던 그는 이 시대의 영원한 기치를 높이 든 작가로 남아있다.

출판부문 유행어 : 위화(余華), 《화설중국(話說中國)》, 댄 브라운(Dan Brown, 丹布朗), 《형제(兄弟)》, 《진강(秦腔)》, 추리소설(懸疑小說), 《중국을 변화시킨 거인 장쩌민(他改變了中國)》, 《해리 포터 6(哈利波特6)》, 바진 사망(巴金逝世), 《천사와 악마(天使與魔鬼)》

1) 위화(余華)

보도내용 : 위화의 “통제 불능”상태와 《형제》

8월 초, 상하이 도서전에서 위화(余華)는 10년만의 침묵을 깨고 첫 장편소설인 《형제(兄弟)》 상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설은 아직 인쇄 중이었지만,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어제 상하이 문예출판사를 찾아가 교료지를 입수했다. 이후 위화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그는 《형제》는 일생일대 최고의 작품이라며 자신감에 들떠있었다.

그는 《형제》를 쓰던 당시 완전히 새로운 창작상태로 빠져들었다며, 그것을 “통제 불능”상태라고 표현했다. 그는 예정됐던 10만 자를 훨씬 뛰어넘기고, 등장인물도 차츰 추가시키는 등 원래 생각했던 구상을 바꿔나갔다. 매일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글쓰기에 전념했던 당시를 그는 마치 “약을 잘못 먹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표현했다. 또 전화상으로 일부 스토리를 말할 때는 목소리에서마저 평소와 다른 흥분감이 느껴졌다. “이 부분은 강렬한 묘사를 추구했는데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저조차도 내게 이런 서술능력이 있었나 놀랄 정도였죠. 정말 인간의 능력은 무한한가 봅니다.”

그는 또 “저는 이 소설에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일생일대 최고의 작품일 겁니다. 지금은 상편만 선보였지만 하편은 더욱 불만할 거예요. 아마 내년 초쯤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형제》는 상편은 “문화혁명”을, 하편은 그 이후인 80년대를 다룰 예정이다. 결말에 대해 그는 결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올 11월쯤 완료될 예정이라며, 이야기가 끝나는 시기도 그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듣지 못했지만, 《형제》 상편을 읽고 나는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형제》를 쓰고, 수정하고, 교묘지를 볼 때까지 수도 없이 울었어요. 소설 이곳저곳이 절 울게 하더군요”라고 말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형제》에서 위화는 여전히 자신의 장기인 잔혹한 묘사를 버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중국의 잔혹한 묘사의 대표인물”이니 어쩔 수 있느냐고 했지만, 이 소설은 기존의 잔혹함과 따스한 가족애가 교묘하게 맞물리고 있었다. 이에 대해 그는 “상편은 문화대혁명을 다루고 있어요. 이 처참한 기억에 가족의 따스함과 가족애마저 없었다면 저는 이 소설을 완성하지 못했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가족의 따스함을 그린 부분은 그와 독자가 잔혹한 소용돌이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정신적 버팀목이자, 이번 작품의 최고 하이라이트로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눈시울을 적시면서도 그는 특유의 유머감도 잃지 않았다. 소설 앞부분에 보이는 다소 썰렁한 유머에 담긴 해학과 과장 역시 그가 자주 쓰는 수법이다. 재미있는 것은, 소설 중 투기꾼 치과 의사의 이름이 “위바야(余拔牙)”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제가 5년간 치과 의사였던 건 알고계시죠?”라며 마지막까지 위트를 잃지 않았다.

(발췌 : 2005년 7월 20일자 新民晚報)

2) 《화설중국(話說中國)》

우수 칼럼 : 대형 중국 역사문화백과전서 《화설중국(話說中國)》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호평은 받은 중국 역사문화출판물인 《화설중국(話說中國)》이 완성됐다. 이 책은 전체 16권에 1,500여 가지의 이야기와 1,500여 명의 인물, 3,000여 장의 사진, 7,500여 개의 역사문화 백과지식이 수록돼 있으며, 정치사와 문화사를 총망라하고 있어 전통문화내용과 현대적인 독서스타일을 완벽히 결합시킨 백과전서라 할 수 있다.

《화설중국》의 8대 특징

1. 《화설중국》은 중국의 5천년 역사를 “재현”하고, 중국 역사문화의 정수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현대인들이 좀 더 쉽게 찬란했던 역사세계로 들어가 위인들과 함께 거닐고, 선현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국내외에서 당대 최고의 역사학자로 추앙받고 있는 리쉐친(李學勤) 교수가 본 서적의 총 고문을 맡고 있다. 그는 각 시대별 전문가팀을 조직해 각 권의 고문을 맡도록 했다.

3. 중국 타오펀출판상(韜奮出版獎) 수상자이자 상하이 문예출판사 편집장 허청웨이(何承偉)가 기획을 맡아 30년간 출판업계에 몸담은 노하우를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

4. 저명한 학자이자 각 시대별 전문가인 멩스카이(孟世凱), 쉬취윈(許倬雲), 거젠송(葛劍雄), 천까오화(陳高華), 송웨즈(熊月之) 등이 고문으로 활약하며 혼신을 다해 본 서적의 기획, 편집, 심의에 참여해주었다.

5. 양산쥬(楊善群) 등 제1선에 선 30여 명의 역사학자들이 전서를 편집했으며, 다년간 쌓아온 학술지식을 모아 더욱 정선되고 훌륭한 문장을 만드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6. 수록된 10장의 4절지 지도는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푸단대(復旦大) 역사지리 연구센터 소장인 거젠송(葛劍雄)교수가 진시황과 한나라 무제에서 근대사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별로 영토변천과 민족융합, 대외교류를 비롯해 위인과 명승고적 등의 내용을 해석, 심의, 체계화시켜 더욱 생생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7. 《청명상하도(清明上河圖)》, 《난정서(蘭亭序)》, 《한희재야연도(韓熙載夜宴圖)》 등 명인들의 대작을 삽입했다. 또한 원본과 모사본을 삽입해 원작의 기풍을 살린 데다, 전문가들의 평가까지 덧붙여 독자들로 하여금 쉽게 국보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8. 저명한 북 바인딩 디자이너이자 제1회 상하이 출판인상 수상자인 웨인창(袁銀昌)이 본 서적의 전체 디자인을 맡았다. 독특하고 정교한 바인딩 디자인은 본 서적의 현대적 이미지와 백과전서로서의 특징을 완벽히 표현해내고 있다.

(리징윈(李菁文), 발췌 : 2005년 5월 13일자 新民晚報)

3) 댄 브라운(Dan Brown, 丹布朗)

보도내용 : 댄 브라운 전 세계 뒤흔들어
루브르궁 배경으로 한 영화도 초읽기

미국 작가 댄 브라운(丹布朗, Dan Brown)이 요즘 속된 말로 완전히 뒀다. 그의 소설이 전 세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문화부 대변인은 최근 프랑스 정부는 소설 《다빈치 코드》를 리메이크한 영화를 루브르궁에서 촬영하도록 허가했다고 발표했다. 댄 브라운의 또 다른 소설 《천사와 악마》도 이미 중국에 수입된 상태이며, 다음 달쯤 인민문학출판사에서 정식 출판될 예정이다.

댄 브라운의 추리소설 《다빈치 코드》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2천만 권 이상 인쇄됐으며, 중국에서는 작년 초 출판된 후 수많은 팬들의 사랑 속에 모두 40여만 권이 팔려나갔다. 보통 베스트셀러가 수만 권에 그치는 것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소설을 “메가 베스트셀러”라고 부르고 있다. 뒤이어 들어온 《디지털 포트리스》도 역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전년도 전미 도서 판매량 순위에서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는 2003년 출판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보적인 선두자리를 지켰다. 이로서 이 소설은 2년 연속 전미 판매량 1위를 기록하게 됐다. 또 이번 순위 10위권 안에는 댄 브라운의 소설이 4편이나 선정됐으며, 그 중에는 《디지털 포트리스》와 곧 중문으로 만나게 될 《천사와 악마》도 포함돼 있다.

(발췌 : 2005년 1월 26일자 新民晚報)

4) 《형제(兄弟)》

우수 칼럼 : 《형제》, 한 편의 “살아있는” 역사

위화(余華)가 10년 만에 침묵을 깨고 장편소설 《형제(兄弟) 上(상하이 문예출판사)》을 선보였다. 총 18만 자가 쓰인 상편은 60년대 중후기 한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시작된다. 먼저 남편을 떠나보낸 한 여성과 아내를 여윈 한 선생은 각자 아들을 하나씩을 두고 있다. 이 네 사람이 가족을 이루며 “형제”가 탄생된다. 줄지에 “의붓자식”이 돼버린 두 형제는 부모의 결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다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도 무지하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현재 자라고 있고 자라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빠른 속도로 인간사를 깨달아간다. 게다가 피 끓는 청춘인 두 사람의 머

릿속은 신체적인 성장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궁금증으로 가득하다. 작가는 또 두 형제 주위에 마을 사람들인 시인, 작가, 조반파(造反派)²⁾, 지주 등의 인물을 설정하고, 이 인물들을 통해 그 시대 민중들의 특징을 나타냈다. 의외였던 것은 작품 속에 형제간의 이야기가 결코 많지는 않다는 것이다. 다만 다음 작품에서 이 두 형제간에 경악할만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암시만 남기고 있다.

위화의 이전 작품과 비슷한 점은 작가가 여전히 역사의 변화를 표정 없는 인물들과 이야기 속에 농축시켰다는 점이다. 또한 작가의 펜 아래 인물들이 전체 이야기에 일종의 해학성을 제시하고 있어 인물들에게서 만화를 변형시킨 것 같은 필법이 강하게 느껴진다. 영국의 문호 디킨스처럼 작가는 한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인물들의 성격이 역사문화의 유적이 되기 때문에 이 인물들의 성격을 충분히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이 작품에서 철저히 실행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작가는 인물을 그리기에 여념이 없는 듯하지만, 사실상 작가가 더욱 신경 쓴 것은 역사의 변화가 보통 사람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위화가 이전에 선보인 《살아간다는 것(活着)》과 《허삼관매혈기(許三觀賣血記)》 역시 일맥상통하는 작품들이지만, 《형제》는 이 작품들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걸작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작가는 또 이 작품은 최종적으로 모두 40만 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리광터우(李光頭), 쑹강(宋鋼) 형제의 이야기가 이제 겨우 반밖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앞으로 만나게 될 하편에서 우리는 리광터우가 어떻게 갑부가 되는지, 한 개인으로서, 또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작가는 “서양인들이 4백년간 겪은 변화가 이 시대 중국 청년들의 생활 속에는 4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농축돼 있다”며 “정신적 광란, 억압된 본능, 윤리의 전복 등 한 때 서양인들을 괴롭혔던 사회현상들을 중국이라고 피해갈 수는 없다. 다만 다른 점은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시간이 훨씬 짧기 때문에 더 잔혹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웨이신홍(魏心宏), 발췌 : 2005년 8월 14일자 新民晚報)

5) 《진강(秦腔)》

우수 칼럼 : 현실적인 집필 자세

2) 중국 문화 대혁명 때 문화혁명을 반대하던 주자파(走資派)에 반대한 군중 조직 또는 그 조직에 참가한 사람

농촌과 농민을 묘사한 작품 중에서도 자평아오(賈平凹)의 신작 《진강(秦腔, 작가출판사)》의 서술시각은 눈여겨볼만 하다. 이 소설은 민중과 괴리된 것도, 외부인의 연민도 아니며,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거창한 사명도 아닌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다. “괴리됐다”는 것은 원래 농촌에서 태어났지만 훗날 고향을 떠난 작가를 말한다. 이들은 비록 농촌에 뿌리를 두고 있긴 하지만 이미 땅에서 떨어진 상태라 땅의 호흡과 리듬을 느낄 수가 없다. “외부인”이란 도시출신 작가를 말한다. 이들은 문화적 배경 때문에 자연히 민중의 아픔을 걱정하는 시각을 타고나지만, 가치판단이나 분별력에서 늘 벽을 허물 수가 없다. “농민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농촌을 소재로 하는 작품들의 전형 중 하나이다. 즉, 작가들은 자신을 사회에 속한 양심적 지식인으로 보지 않고, 농민의 입장에 서있는 선구자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상술한 세 가지 유행하는 집필시각과 비교해볼 때, 《진강》은 오히려 지인논세(知人論世)적이다. 즉, 우선 이해하고 직접 본 후에 그것을 서술했다. 이것은 피상적이거나 덧붙인 것이 아니라 아예 뚫자리를 펴고 쓴 글이다. 통상적인 인물이 야기나 스토리 전개 등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느낌에 따라 썼기 때문에 이처럼 자연스러운 작품이 탄생한 것이다. 땅에 대한 전 당지부서기의 그리움, 진강에 대한 샤텐즈(夏天智)의 집착, 자본주의에 대한 신임 당지부서기의 미신, 가족애와 전통의 희석, 지방극의 몰락, 바깥세상에 대한 농촌 청년들의 동경 등이 모든 것들이 “자질구레한 일상”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발생한다. 도시와 농촌의 대립, 농민의 운명에 대한 탄식도 없고 정치관이나 문화관으로 인한 분쟁도 없는, 오직 물 흐르듯, 계절이 바뀌듯 흘러가는 일상에서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난다.

여기서 우리는 작가의 집필 자세를 확연히 볼 수 있다. 지나치지도, 멋을 내지도, 선정적이지도 않다. 작가는 아주 독특한 서술자인 인성(引生)을 등장시킨다. 인성이란 인물은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물로, 약간 모자란 듯 하지만 사람만은 아주 진실하다. 또 생각이나 행동이 고집스러워 남들에게 놀림을 받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경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마치 유명처럼 마을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일들을 자유롭게 관찰할 수가 있다. 자평아오가 이런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한 것은 바로 낮은 자세로 관찰하고 서술하겠다는 뜻이다. “내가 바로 최하층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내가 바로 생활 속의 눈이다”. 《진강》의 잔잔한 서술방식은 이런 최하층의 시각에서 도움을 얻고 있다.

6) 추리소설(懸疑小說)

우수 칼럼 : 《다빈치 코드》출판계 후끈, 지식 추리소설 해외서 유행

문을 잠그고 커튼도 모두 내린 채 스탠드만을 켜고 적막감이 감도는 어두운 밤 호흡을 가다듬으며 정신없이 읽어나갔다. 마치 팽팽히 당겨진 태엽처럼 신경이 곤두서더니 아드레날린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각종 공포감으로 온 몸이 전율했다……. 그렇다, 추리소설은 이렇게 당신에게 식은땀이 나면서도 눈을 떼 수 없는 짜릿한 독서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2년 간 미국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손꼽힌 《다빈치 코드》의 성공사례는 결국 지식 추리소설 출판열풍으로 이어졌다. 이후 신비한 역사와 음모가 혼합된 공포소설들이 앞 다퉈 출판됐다. 본지는 지난 2005년 1월 31일 “중국 추리소설 서서히 고개 들어, 《부서진 얼굴(碎臉)》, 《지옥의 19층(地獄的第19層)》 등 인기몰이”라는 제목으로 올 초 도서시장을 장악한 추리소설 붐을 분석 보도해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었다. 하지만 한 업계인사는 중국 추리소설이 자리메김하려면 아직 멀었다며, 중국 소설 유형화(類型化)는 아직도 초보단계라고 지적했다.

(천시한(陳熙涵), 우웨이원(吳越文), 발취 : 2005년 3월 18일자 文匯報)

7) 《중국을 변화시킨 거인 장쩌민(他改變了中國)》

보도내용 : 《중국을 변화시킨 거인 장쩌민》출판

미국 작가 로버트 로렌스 쿤(Robert Lawrence Kuhn)이 쓴 책이 중국어와 영어로 전 세계에 동시 출판됐다.

《중국을 변화시킨 거인 장쩌민(他改變了中國：江澤民傳)》이 최근 상하이 세기출판그룹(世紀出版集團)에 의해 정식 출판됐다. 이 책의 작가인 로버트 로렌스 쿤은 중국 국정과 역사, 전통문화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오랜 세월 중국과 장쩌민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그는 다량의 자료를 수집하고, 장쩌민의 가족, 친구 및 동료들을 대상으로 세심한 인터뷰를 진행한 끝에 이 책을 완성시켰다.

이 책은 장쩌민의 출생부터 시간 연대순으로 각 시기별 그의 생활모습과 사업 활동을 전면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 책은 제1부 “장쩌민과 그의 시대”(根基, 1926-1989), 제2부 “지도자의 길”(領導地位, 1989-1966), 제3부 “중국을 세계로”(崛起, 1997-1999), 제4부 “비전과 미래”(展望, 2000-2004) 등 모두 4부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전 장마다 소제목들은 장쩌민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장쩌민의 주옥같은 사진자료들도 다수 수록돼 있다.

이 책은 중국어와 영어로 전 세계에 동시 출판된 최초의 중국 지도자 자서전이다.

(발췌 : 2005년 2월 4일 新民晚報)

8) 《해리 포터 6(哈利波特 6)》

보도내용 : 베이징 도서빌딩 “해리 포터” 선풍

지난 7월 16일 《해리 포터 6(哈利波特 6)》 영문판이 전 세계에 동시 출판됐다. 출판 당일 베이징 도서빌딩(北京圖書大廈)에서는 모두 1,612권이 판매돼 30여만 위안이라는 판매액을 거두며 단행본 출판물 1일 최고 판매기록을 갱신했다. 그리고 7월 18일까지는 2,627권, 48만 2천 위안을 벌어들였다.

수많은 “해리 팬”들에게 해리 포터가 전 세계를 풍미한 “마법소년”인 된 것처럼, 이제 전 세계 출판업계에서도 《해리 포터》 시리즈는 진정한 “마법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관계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1997년 세상에 나온 이후 《해리 포터》 시리즈의 전 세계 판매량은 2억 6,500만 부에 달하며, 그 중에서도 《해리 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은 현재까지 60여 개국 언어로 번역돼 2,500만 부가 판매됐다. 또한 신화를 소재로 하고 있는 이 작품은 성인물과 아동물의 경계선을 허물어 다양한 연령대와 국가, 민족의 수많은 열성팬을 확보하고 있다.

(발췌 : 2005년 7월 22일 人民日報)

9) 바진 사망(巴金逝世)

보도내용 : 이 시대 문학의 거장 바진 별세

지난 2005년 10월 17일 19시 06분경, 이 시대 문학의 거장 바진(巴金)이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났다.

바진의 본명은 리야오탕(李堯棠)이며, 1904년 11월 25일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정통순가(正通順街)에서 태어났다. 처녀작을 발표한 1921년부터 1999년 2월

완성한 《회념진탁(懷念振鐸)》에 이르기 까지 그는 일생 중 모두 1,300만 자의 작품을 출판, 번역했다. 그의 《격류 3부작(激流三部曲)》(《집(家)》, 《봄(春)》, 《가을(秋)》)과 《애정 3부작(愛情三部曲)》(《안개(霧)》, 《비(雨)》, 《번개(電)》) 등의 문학작품은 중국문학의 걸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바진은 뛰어난 출판가이자 편집가였다. 지난 3, 40년대에는 상하이 문화생활출판사에서 14년 간 편집장으로 있으면서 적잖은 문학도들을 양성해냈다. 또 말년에는 사회에 위대한 공헌을 했는데, 바로 5권의 《수상록(隨想錄)》 출간과 중국현대문학관을 세운 것이다.

그는 또 제1, 2, 3, 4기 전인대(全人代) 대표였으며, 제5기 전인대 상임위원과 제6, 7, 8, 9, 10기 전국 정협(全國政協) 부주석을 역임했으며, 2003년 11월 25일에는 100세 생일을 맞아 국무원의 “인민작가” 칭호를 받기도 했다.

수십 년 간, 특히 1981년 중국 작가협회 주석을 역임할 때부터 그는 독자들의 마음속에서 사그라지지 않는 밝은 등불처럼 문단을 밝히고, 정신적인 위안을 주었다.

바진은 1992년 2월 발병한 감기로 인한 고열로 6년여 간 악화와 호전을 반복해왔다. 당과 국가의 혼신을 다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악성중피세포종양 등의 원인으로 영원한 고인이 됐다.

10) 《천사와 악마(天使與魔鬼)》

우수 칼럼 : 기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천사와 악마》

재작년 나는 우연한 기회에 《다빈치 코드》를 읽은 뒤 바로 댄 브라운의 다른 작품 3가지를 구해 주경야독한 끝에 한 주 만에 해치워버렸다. 댄 브라운은 해외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다. 최근 새롭게 번역된 《천사와 악마(天使與魔鬼)》는 손에 넣자마자 아내에게 빼앗겨버렸다. 아내는 아이에게 분유를 먹일 때도 손에서 이 책을 놓지 않았다.

이 소설은 처음에는 다소 SF소설 같은 느낌을 준다. 세계 최대의 입자가속기를 소유한 유럽소립자물리학연구소(CERN)는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반물질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얼마 후 도난당하고, 이 물질 제작에 참여했던 과학자마저 가슴에 사이비종교의 마크로 보이는 낙인이 찍힌 채 살해당하고 만다. 하버드대

교수이자 기호학자인 로버트 랭던은 잠결에 연락을 받고, 우주선처럼 빠른 비행 물체에 태워져 범죄현상으로 인도돼 진범을 찾는데 협조하게 된다. 랭던은 한눈에 이 낙인이 비밀조직인 “일루미나티”의 마크라는 걸 알아본다. 이 조직은 역사적으로 로마교회의 무자비한 사냥과 박해를 받았던 저명한 과학자가 교회에 복수하기 위해 창립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사라졌던 반물질이 얼마 후 바티칸에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황선거일에 맞춰 유력한 교황후보로 발탁된 4명의 추기경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가공할만한 폭발위험이 초읽기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물론 원작이 위의 설명처럼 뚜뜻미지근한 것은 아니다. 자타공인 추리소설의 대가 댄 브라운, 나는 그의 숨 막히는 수법을 존경한다. 그는 지극히 확실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미스터리들을 구성하고, 독자의 구미에 맞으면서도 분명하고 조리 있는 실마리들로 사건을 풀어나가며 독자들이 손쉽게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진부한 추리소설들은 독자들을 우롱하고 무작정 오리무중 속으로 빠트리다가 초점 없이 방향을 잃어가기 일쑤다. 하지만 댄 브라운의 묘미는 숨 가쁘게 진행되는 스토리 속에 다량의 종교, 역사, 문화, 지리 등의 지식을 가미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숨 가쁜 스토리에 배경지식을 접목시킨다는 것 자체가 모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접목시켜 지식화된 스토리를 이끌어내고 있으니 아무나 흉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장시간에 걸친 연구와 현지고찰이 필요했을 것이다. 작가 댄 브라운은 《천사와 악마》 속에 나오는 예술품과 묘지, 지도, 로마건축물 등(정확한 위치를 비롯해)은 모두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것들이며, 일루미나티도 정말 현존하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유럽소립자물리학연구소 역시 실존하고 있으며, 이들이 반물질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물론, 초반기에 탕다는 비행물체도 실제원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사실적인 스토리로 가장 터무니없고 대범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댄 브라운의 성공비결이 아닌가 한다. 과연 중국의 통속적인 소설가들이 이것들을 배워낼 수 있을까?

이밖에도 로마와 바티칸에 대한 생동적이면서도 사실적인 묘사 덕분에 이탈리아 관광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모 현지 여행사에 따르면 미국이나 영국에서 로마를 찾는 여행객들의 대다수가 손에 《천사와 악마》를 들고 온다며, 이들은 읽은 내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그 발자취를 찾아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 여행사는 “천사와 악마 투어”라는 여행상품을 개발해, 여행객들이 버스를 타고 암살과 암투가 벌어졌던 소설 속 명소들을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투어 상품은 4시간의 여정에 75유로를 받는다고 하니 이만하면

짹짹한 수익거리이다. 하지만 이 여행상품에 감히 바티칸을 넣을 순 없었다. 교회에 대한 댄 브라운의 불경스런 태도 때문에, 이 여행사도 눈치껏 앞가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옌펑원(嚴鋒文), 발췌 : 2005년 8월 27일 文匯報)

제4장 교육부문 유행어

서두 : 감동과 경악의 공존

① 동생을 데리고 수업을 받던 “홍잔후이”, ② 온몸으로 차를 막아 학생을 구한 “인쉐메이”의 감동적인 사연이 전 중국에 훈훈함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③ 현행 학자금대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 파면된 “장바오칭” 전 교육부 부부장의 명성이 날로 드높아지고 있다. ④ 또한 “천단칭” 청화대 교수의 사직과 “허웨이팡” 베이징대학 교수의 대학원생 모집중단 사건은 중국의 현행 대학원 교육체제에 대한 의문과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⑤ 교육부가 내놓은 각종 규정이 “햇빛입시”를 선도하고 있다. ⑥ “입시이민” 바람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요즘, ⑦ “가짜 2B 연필” 파동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⑧ Ning'an(寧安) 홍수가 “샤란진 초등학교” 백여 명의 생명을 빼앗아갔다. 우려의 목소리도 높지만 혹시 이 자연재해에 인재(人災)요소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교육부문 유행어 : 홍잔후이(洪戰輝), 입시이민(高考移民), 인쉐메이(殷雪梅), 장바오칭(張保慶), 천단칭(陳丹青), 햇빛입시(陽光高考), 2B연필(2B鉛筆), 新 토플시험(新托福考試), 샤란진 초등학교(沙蘭鎮小學), 허웨이팡(賀衛方)

1) 홍잔후이(洪戰輝)

보도내용 : 홍잔후이, 전 중국을 눈물로 물들이다

11년 전, 허난(河南)의 한 농가에 엄청난 재앙이 찾아왔다. 아버지가 갑자기 간혈성 정신병에 걸렸고, 폭력에 시달리던 어머니는 끝끝내 집을 떠났으며, 남겨진 어린 남동생과 아버지가 병환 후 데려온 갓난아이까지 돌봐야 했다.

이 가정의 모든 짐은 당시 겨우 12살이던 장남 홍잔후이(洪戰輝)가 짊어져야 했다.

홍잔후이는 11년을 하루같이 학업과 함께 상상하기조차 힘든 어려움을 극복 해가며, 예고 없이 발작을 일으키는 아버지와 주워온 여동생을 부양했다. 그동안 흔들린 적도 있었고, 수없이 도망가고도 싶었다. 하지만 그는 책임감 하나로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주어진 길을 갔다”.

최근 후난성 화이화대학(湖南省懷化學院)에 입학한 그는 이미 표지도 떨어져 나가버리고 너털너털해졌지만 뻑뻑이 채워진 일기장을 꺼내 우리와 함께 그간의 고통, 아픔, 그리고 행복으로 충만했던 생활을 영유했다.

변고

“전 1982년 태어났어요. 우리 집은 허난성 시화현(西華縣) 동샤진(東夏鎮) 홍장촌(洪庄村)에 있는 작은 벽촌마을에 있어요. 그리 풍족한 편은 아니었지만, 성실 하셨던 부모님은 나와 남동생, 여동생을 부족함 없이 키워주셨죠” 12월 11일 오전, 화이화대학의 한가로운 교정에서 만난 그의 얼굴에서 한 가닥 기쁨과 행복이 스쳐지나갔다. 하지만 그 행복은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1994년 8월 말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재난이 찾아왔다. 다정다감했던 아버지가 2틀 간 정서불안에 시달리더니 간혈성 정신병이 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점심때가 돼서야 가족들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나무 아래서 아버지를 발견했다. 당시 아버지는 가슴에 버려진 것 같은 여자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다.

아버지를 찾으러 갔다가 아이까지 떠맡게 된 셈이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이 불쌍한 여동생을 좋아하게 됐고, 홍천천(洪趁趁)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줬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가족들이 1주일 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찌뽕만 남겨둔 채, 온다간다 말도 없이 떠나버린 것이다. 병환 후 늘어난 아버지의 폭력과 가정의 부담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또 다시 이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어머니마저 떠나버려 버팀목이 사라진 이 집안에서 그는 어머니 역할까지 도맡아야 했다.

의지

1998년, 홍잔후이는 허난성의 명문 고등학교인 시화1중(西華一中)에 합격했다.

20킬로미터 밖에서 합격통지서를 받고 뿔 듯이 기뻐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바로 당면한 현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학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어린 여동생은 누가 돌볼 것인가?

그가 처음 떠올린 것은 몇 년간 소식이 없는 어머니였다. 만약 어머니만 찾을 수 있다면 여동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일 어머니를 못 찾는다면 어쩔 수 없이 친부모에게 데려다줄 수밖에 없다. 결국 어머니를 찾지 못하고 친부모를 찾아가면 그가 여동생을 데려다주고 돌아서려는 순간, 동생은 갑자기 오빠의 가슴으로 뛰어들더니 “오빠, 나 버리지 마……”라며 울음을 터트렸다.

“그 순간 저는 우리는 결코 떨어져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가득 고인 눈물을 삼키며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다시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마련하고 동생까지 부양하기로 결심했다. 시화1중에 입학한 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그는,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구해 여동생과의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중학교 때와 똑같이 매일 학교와 자취방을 분주히 뛰어다녔다.

사랑

2003년, 홍잔후이는 후난에서 멀리 떨어진 화이화대학 경제관리학부에 입학했다. “베이징대학에서 공부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는 늘 여동생에게 베이징대학에 입학하면 베이징에 가서 함께 놀자고 약속해왔다. 그래서 대입성적이 나왔을 때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는 기분이었다. “동생은 오히려 별로 실망한 것 같지 않았어요. 다만 동생이 실망한 건 처음부터 함께 화이화에서 생활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개학일이 다가오자 그는 여동생을 큰어머니 택에 맡겨둔 채 학교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기숙사에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화이화 시내를 둘러봤는데, 바로 전화카드를 팔면 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었던 고학생할 얘기가 나오자 그는 쉴 새 없이 말을 이어나갔다. 생활의 압박은 그의 사업수완을 완성시켜줬다.

“잔후이는 학교에서 육류는 거의 먹지 않았어요. 심할 때는 밥만 사다가 라면 스프를 반찬삼아 먹을 정도였죠”. 그의 고향 친구이자 화이화대학 경제관리학부 1년 선배인 리홍어(李紅娥) 씨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2004년 여름방학에도 그는 고향에 가지 않고 다음 학기 학비를 벌기에 여념이 없었다.

방학 전 화이화로 온 여동생에게 “꼬맹이”라는 별명도 지어줬다. 여동생은 잠시 선생님 댁에 머물다 다시 여학우의 기숙사로 옮겨졌다. 그와 여동생과의 눈물겨운 사연은 차츰 전 캠퍼스로 퍼져나갔다. 이 소식을 들은 과와 학교 관계자들은 모금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모금된 3,190위안을 끝끝내 받지 않았다. 결국 학교측은 이 돈으로 그의 학비를 대신하기로 결정했다.

각계에서도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그를 돕겠다는 손길이 쏟아졌지만 그는 모두 거절했다. “도움을 거절한 것은 제게는 독립심과 강인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고통과 역경을 참아왔던 건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미 혼자 힘으로 살아갈만한 능력을 갖췄어요.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고통 속에 허덕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할 곳이지요”.

그의 사연에 감동한 대학총장도 전례를 깨고 더 편하게 여동생을 돌보라며 독실을 제공했다. 또한 학교측의 배려로 그의 여동생은 학교 근처에 있는 허청구(鶴城區) 스먼초등학교(石門小學)에 편입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동생은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됐다. 이른 아침, 동생은 가방을 메고 등교하고, 학교에서 점심을 먹은 뒤 대학에 있는 보금자리로 돌아온다. 그녀가 돌아오면 오빠는 공부도 도와주고 표준어도 가르쳐준다. 꼬맹이는 하루가 다르게 의젓해지고 있다. 이제 요리솜씨도 제법이다. 가끔 오빠가 물건을 파느라 늦어질 때면, 그녀는 따뜻한 밥을 지어 오빠를 기다리곤 한다.

2004년 음력 5월 25일, 이날은 홍잔후이의 생일이었다. 전화벨 소리에 휴대폰을 든 그는 그제야 동생이 휴대폰으로 생일축하곡을 신청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직까지 누구에게도 자신의 생일을 말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마냥 어린 줄만 알았던 동생이 자신의 생일을 기억했다는 사실에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밤, 학교에서 돌아온 꼬맹이는 그에게 직접 접은 종이학 천 마리를 내밀었다. “오빠, 같은 학교에 다니는 언니가 이걸 가르쳐줬어. 정말 힘들었는데 결국 해냈어. 선물 살 돈이 없어서 이것밖에 준비 못 했어…….”

그의 말대로 그는 희망이라곤 전혀 찾을 수 없던 생활 속에서 빛을 찾아냈다. 그는 대학입학 후 매년 설에 고향을 찾을 때마다 점점 좋아지시는 아버지를 배서 기쁘다고 말했다. 2004년 말, 오랫동안 자책감에 시달리던 어머니가 돌아왔다. 그리고 지금은 몇 년간 소식이 없던 남동생에게서도 소식이 왔다.

(발췌 : 2005년 12월 13일자 新華社)

2) 입시이민(高考移民)

보도내용 : 수석도 올고 간 입시이민

최근 하이난(海南)에서 대입시험 이과 수석을 차지한 후난(湖南)성 출신 리양(李洋, 16) 군이 눈물을 머금은 채 귀향했다. 입시이민자라는 이유 때문에 현지 교육부에서 명문대 입학 불허하는 바람에 꿈에 그리던 칭화대학(淸華大學) 입학이 물거품이 돼버린 것이다. 이밖에도 하이난에서는 올해만도 29명의 타지출신 입시생들이 리양과 “같은 과오를 범해” 명문대 입학자격을 박탈당했다.

더욱 거세지는 대입이민 바람에 비하면 “리양사건”은 단지 전형적인 일례일 뿐이다. “수석”인 리양의 안타까움도, 현행 입시제도와 지역차별정책에 대한 반발도 참을 수 있다 치자. 이런 입시이민의 배경을 파악하고 입시이민문제 해결에 존재하는 교훈만 되새긴다면 향후 대학입시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만 명에 가까운 “입시이민”

90년대부터 하이난에는 내륙에서 “이민”오는 입시생 수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올해처럼 1만 명 가까이 폭주할 지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작년엔 3만 5천명이었던 입시생수가 올해 들어 4만 5천명으로 증가한 걸 보면 입시생 중 1명이 “입시이민자”인 셈이다. 이 입시이민자들은 21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몰려왔다.

빛발치는 항의

일부 입시생 자녀를 둔 가장들은 하이난성 교육청이 제때 정보를 발표하지 않고 투명성이 결여되는 바람에, 달콤한 말에 현혹돼 큰돈을 들여가며 자녀를 하이난 입시에 참가시켰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또 하이난 교육청이 2차 등록 입시정원을 제한한다는 소식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많은 입시생들이 여기까지 이민 와서 시험에 참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항의했다.

입시생 한 명이 중개자를 통해 하이난 주민등록증을 받으려면 보통 1만 5천

위안에서 1만 8천 위안이 들며, 많을 때는 3만 위안을 호가한다. 한 “불법 중개자”는 혼자 백여 명의 입시생들을 상대로 백만 위상 이상의 수고비를 갈취했다. 하이커우(海口)시 공안국 호적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택구입으로 하이커우시로 이전한 인구수는 12,800명에 이른다. 작년 동기에 겨우 4,350명이었던 걸 감안한다면 몇 달 사이 3배 넘게 증가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관련 당국은 이런 폭발적인 증가에도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자기 일만 잘하면 된다는 식으로 정보조차 주고받지 않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입시이민 열풍에 무감각한 듯 한 인상마저 보였다.

교육제도에 대한 불신

일부 내륙 가장들은 현행 국가 교육제도와 정책에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정부는 정세변화에 맞춰 더욱 합리적인 입시정책을 제정하고, 입시방법 개혁 등을 통해 공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일부 가장은 지역차별을 허물고 전국적인 통일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대다수 가장들은 현행 입시정책이 현재 중국의 실제상황에 부합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회경제와 문화교육발전 불균형을 감안한다면 일부 외곽지역에 특혜를 주는 건 당연하다. 다만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발취 : 2005년 7월 22일자 新華社)

3) 인쉐메이(殷雪梅)

보도내용 : 애절한 마음으로 쉼메이를 외치다

지난 3월 31일 교사 인쉐메이가 온몸으로 6명의 아이를 구했다. 어제 오전, 10만 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진탄(金壇)에서 그녀를 배웅했다.

애절한 마음으로 쉼메이를 외치다

故 인쉐메이에게 바치는 한 교사의 글에는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절박했던 순간 끈끈한 모성애가 인쉐메이 선생님의 몸에 영원을 아로새겼다.”라고 적혀있었다.

이런 영웅적인 행동이 없었다면, 52세의 인쉐메이는 그저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학생들은 그녀가 얼마나 학생들을 사랑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선생님은 우리 엄마보다 더 친근해요”라고 말할 정도니 말이다.

지난 7일 오전 8시, 10만 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자발적으로 빈소가 마련된 장쑤(江蘇)성 진탄(金壇)시 홍차오(虹橋) 초등학교를 찾았다. 이들은 온몸을 바쳐 학생들을 구해낸 여자 영웅 인취메이 선생을 눈물로 떠나보냈다.

“선생님은 우리 엄마보다 친근해요”

3월 31일 정오 사고 차량이 돌진하던 순간, 인취메이 선생은 두 팔을 벌려 도로 중앙에 있던 학생을 길 한 쪽으로 힘껏 밀어 넣은 뒤, 미처 피하지 못하고 25미터 밖으로 나가떨어졌다. 그녀의 이 동작은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캡처화면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매 병아리 잡기”놀이를 할 때마다 선생님이 이런 동작을 자주 했었다고 전했다. 늘 “엄마 닭”역을 맡았기 때문에 두 팔을 벌려 매로부터 병아리들을 보호했던 것이다. 놀이를 하며 그녀는 “누구나 용기만 있다면 엄마 닭처럼 용감할 수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한다.

(발췌 : 2005년 4월 8일자 新華社)

4) 장바오칭(張保慶)

보도내용 : 교육부, 일부 성(省) 학자금대출정책 소홀 질책

교육부 장바오칭(張保慶) 부부장은 29일 오후 정부의 학자금대출관련 기자회견에서, 국가 학자금대출정책이 직면한 일련의 문제를 지적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 정책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실행조치 또한 명확치 않다고 비난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8개 성(省)에서는 아직도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장 부부장은 또 정부는 6년 간 학자금대출정책을 펼쳐왔고, 작년에는 예년에 비해 파격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대대적인 조정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리 이상적이지 않다며, 아직도 8개 성에서는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8개 성으로는 하이난(海南), 톈진(天津), 헤이룽장(黑龍江), 내이명구(內蒙古), 칭하이(青海), 닝시아(寧夏), 간쑤(甘肅), 신장(新疆) 등이 있으며, 이중에서도 2개 성에서는 단 한 건의 대출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국가가 내놓은 정책을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현재 빈곤 대학생의 숫자와 비율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학자금대출만 제대로 실행된다면 매년 160억 위안을 대출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매년 백억 위안만 대출해주더라도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0년부터 지금까지 대출된 금액은 겨우 120억 위안에 지나지 않는다.

이밖에도 장 부부장은 대학생의 신용문제에 관해 거시적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 대학생들의 신용도가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0년에 시작된 최초의 학자금대출의 경우 상환기간이 8년이기 때문에 2008년부터 상환되면 된다. 2008년이 되려면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대학생의 신용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발췌 : 2005년 8월 29일자 新華社)

5) 천단칭(陳丹青)

보도내용 : 천단칭 칭화대 미술대학 교수 사직 학술행정화 적응할 수 없어

천단칭(陳丹青, 52)은 1980년 이름을 날린 《서장조화(西藏組畫)》로 중국 당대 미술사의 이정표라 칭해진 뒤,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그 후 2000년부터 칭화대(淸華大學) 미술대학 초빙교수 겸 박사 지도교수로 활약하다, 작년 연말 학교측에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에서 그는 “저의 사직사유는 대우문제가 아니라, 현행 인문예술 교육체제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체제에 적응할 수 없기도 하거니와, 적응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린 결정입니다”라고 밝혔다.

3월은 각 대학의 석·박사 모집기간이다. 지난 5년 간 이 시기만 되면 천단칭 교수를 비롯해 칭화대학 대다수 교수들은 층층이 쌓인 석·박사 응시원서를 접하게 된다. 응시원서에는 성명, 연령, 민족, 소속 당 및 단체, 학력란 등이 빼곡히 적혀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치, 외국어, 전공 순으로 나열된 “점수”반영비율이다.

천 교수는 “사람의 인격, 성격, 소양 등이 모조리 숫자로 변해버렸다”며 “이 원서로는 응시생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박사생”들이 전멸하다

5년 전부터 천 교수는 응시원서에 적힌 점수반영비율에 전공이 정치, 외국어 다음으로 밀려난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 그는 이런 순서는 “엉터리”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 “엉터리”의 위력은 바로 눈앞에 나타났다.

2000년 그는 처음으로 중국식 시험의 쓴맛을 봤다. 응시생 24명 중 5명이 합격했지만 외국어에서 전부 탈락한 것이다. 하지만 학교측은 그가 처음으로 합격시

킨 학생인 것을 감안해 이 5명의 탈락자들을 “박사과정 방문학자”로 전환하는데 동의했다. 다음 해, 이 5명의 방문학자들은 논문주제를 정하고 정식 박사과정으로 입문, 다시 외국어시험을 봤지만 또 다시 낙방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박사생”들은 모두 “무효”가 돼버렸다.

4년 간 한 명의 대학원생도 뽑지 못해

대학원생들도 제약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천 교수 연구실에 응시한 한 여학생은 회화(繪畵)성적은 1등이었지만, 외국어와 정치에서 각각 1점이 모자라 낙방하고 말았다. 대다수 예술계 응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베이징에 방을 마련하고 외국어와 정치에 전념하며 한 해를 보냈다. 하지만 이듬해 시험에서도 정치는 합격했지만 외국어는 여전히 불합격이었다. 정치와 외국어 때문에 천 교수는 장장 4년이나 단 한 명의 대학원생도 모집하지 못했다. 게다가 그는 이런 “인재 딸 구기식”제도가 20여 년 간 전국의 예술대학 교수들 사이에서 관례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한탄을 금치 못했다.

27년 전, 천 교수는 요즘 학생들에 비하면 “행운아”였다. “문화혁명”이후 그가 중앙미술대학(中央美術學院) 제1회 유화연구생으로 응시할 때만해도 외국어 점수는 빵점이었지만, 전공점수가 높아 합격했기 때문이다.

예술교육의 거짓 번영을 통탄하다

18년 간 미국에서 생활하다 돌아올 당시 상황을 그는 “교수계획, 교수요강, 교수사상, 교수평가 등이 예술대학 최고의 이슈였다. 예술대학이 지금까지 행 행정적 조항으로 가득했던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년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항상 “과학연구항목”쓰기를 거부해왔다. 그는 문장을 통해 “‘과학연구’는 예술과 무관한 비전문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예술대학 교수양식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예술에 대한 모독이다. 심각한 모독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인문예술교육은 표면적으로는 모집확대, 수익증대, 교과목확대, 논문중시 등으로 번영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퇴보하고 있다”며, 학생들은 점점 “지식은 있으나 문화가 없고, 재능은 있으나 상식이 없고, 전공은 있으나 사상이 없는” 학생들로 물들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천단칭, 이젠 장단 맞추기도 지겹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 누구도 그의 이런 “난동”을 지지하거나 비난하지 못한다

는 것이다. 오히려 일부 관계자들은 그에게 계속 주장을 펼치라는 격려까지 전해왔다. 동료들 역시 그에게 “전폭적인 호의”를 보냈으며, 주위의 젊은 교수진들도 사석에서나마 그의 생각에 동조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매번 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나면, 장내가 싸늘해지거나 화제를 바꾸기 일쑤였다. 가슴은 아팠지만 그도 “이것이 바로 체제의 무서움”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장단을 맞출 수 없다”며, “이 모든 것들도 사치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통탄했다.

(발췌 : 2005년 3월 24일자 重慶晨報)

6) 햇빛입시(陽光高考)

보도내용 : 교육부 “고압선”으로 “햇빛입시” 보호

저우지(周濟) 교육부 부장은 올해 대학 신입생모집사업에서는 “햇빛프로젝트(陽光工程)”를 실시할 예정이며, “6개 공개, 6개 불가(六公開, 六不準)” 방침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입생모집 책임제와 책임추궁제를 정착시키고, 대입응시생에 대한 교육감찰부문의 감찰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합격과 관련된 무분별한 비용은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고압선”이라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비용을 챙기는 대학이 적발됐을 시, 관계 당국은 즉각적으로 주요 책임자에게 징직처분을 내리고 규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올해 대학 입시생 전자파일에는 응시생의 응시정보(주민등록번호, 사상·정치소양심사 평가서나 평어 등), 체력검사정보, 지원정보, 성적정보 등을 비롯해 국가 교육시험에 참가하는 자로서의 신용기록까지 첨가될 예정이다. 이 신용기록에는 규정위반사실 및 처리결과 등이 포함되며, 응시생 전자파일 보관소가 완성되면 그 누구도 임의로 정보를 수정할 수 없게 된다.

(발췌 : 2005년 5월 9일자 人民日報)

7) 가짜 2B연필(2B鉛筆)

우수칼럼 : 가짜 2B연필 파동 정부의 빈틈 드러내

대입입시가 다가옴에 따라, 한때 물의를 일으켰던 ‘2B연필 파동’이 다시금 거세지고 있다. 중국 공상총국이 일부 지역에서 가짜 2B연필의 소재가 발견됐다고 경고한 데다, 얼마 전 CCTV에서도 가짜 2B연필이 컴퓨터 채점요류를 유발할 수 있어, 응시생들의 점수를 정확히 산출해 낼 방법이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두 가지 소식은 대입을 준비 중인 수많은 입시생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만약 입시생이 실수로 가짜 2B연필을 사용한다면,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가짜 분유가 유아에게 가져올 수 있는 위해와 맞먹는 것이다.

중국은 거대한 입시왕국이다. 매년 주요 시험에 응시하는 인구만 해도 최소 천만 명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앞날은 작은 연필 하나로 당락이 좌우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컴퓨터는 오직 2B연필만을 “해독”할 수 있는 걸까? 2B연필에는 국가기준과 강제적인 품질감독절차가 없는 것일까? 지난 몇 년 간 가짜 2B연필로 인한 오채점건은 몇 개나 될까? 이런 문제들은 난해하거나 생각할수록 불안감만 조성할 뿐이다. 新華社에 따르면, 2001년 칭다오(靑島)에 있는 모 고등학교 학생 600명이 가짜 2B연필을 지참하고 대입에 참가한 결과, “컴퓨터 해독불능”으로 모두 0점 처리됐다. 이 학생들은 눈물을 머금고 다음해 시험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이런 “뼈아픈 교훈”에도 불구하고, 2B연필 품질문제가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주요 시험에 지정된 연필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려면, 응시생들이 이 연필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형평성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불합리적이고 터무니없는 현실에 직면해있다. 채점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2B연필의 기준은 상당히 까다로운데 반해, 연필시장에 대한 관계 당국의 감독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중대 정책 연계부분에 커다란 빈틈과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선, 국가시험센터는 채점 컴퓨터를 선정함에 있어서 최대한 “겸용성”을 고려하고, 컴퓨터의 판별능력이 중국의 연필 품질수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채점 컴퓨터의 기술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다면, 교육부는 각 지방 시험센터와의 협의를 거쳐 연필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필지급루트를 확보해야 한다. 이밖에도 국가 품질관리 당국도 2B연필의 품질기준을 엄격히 실행하고 문제가 있는 2B연필을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한편, 품질합격 브랜드를 발표해 국민들이 마음 놓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 같은 점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국가시험의 권위성과 공정성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며, 입시생들의 합법적인 권익 역시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2B연필 파동 후, 베이징(北京), 난징(南京), 쿤밍(昆明), 후허하오터(呼和浩特) 등지에서는 대입 응시생들에게 합격된 2B연필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보장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시기적절한 대응책들이 많은 위안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서 심각한 현실문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하나는 베이징과 상하이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다수 지역이 2B연필 감별기술을 갖추지 못하

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합격한 2B연필을 선택할 것인가? 둘째는 대다수 농촌지역 입시생들은 쉽게 “2B의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다. 관련 당국은 과연 이 지역들이 합격된 연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시간이 없다. 정부는 책임 있는 태도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빠른 시일 내에 “2B연필 파동”을 잠재우고, 8백만 명의 입시생들이 맘 편히 시험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차이광화(蔡方華), 발췌 : 2005년 6월 4일자 北京青年報)

8) 新 토플시험(新托福考試)

우수칼럼 : “新 토플시험” 달라진 모습은 무엇일까?

2006년 5월, 중국 관련당국은 새로운 토플시험을 선보일 예정이며, “확 달라진” 토플시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새로워진 토플시험은 시험형식과 내용, 시험조건에서 기존의 토플시험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얼마 전, 미국 교육재단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한 토플 전문가가 응시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응답했다.

새로운 토플, 새로운 변화

1. 표현능력을 중시한다. 새로운 토플시험문제는 선답형과 OX형 등의 객관식 문제를 10-15%로 줄이고, 언어나 문자 표현능력을 묻는 주관식 위주의 문제로 실전 교류능력을 테스트할 것이다. 중국 학생들에게 가장 큰 타격은 어휘와 문법 테스트가 사라지고 말하기테스트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말하기테스트는 간단한 의견을 말하는 독립형 문제 2항과 종합적인 언어운영능력을 묻는 통합형 문제 4항으로 응시자의 표현능력을 테스트한다.

2. 논리분석, 구성, 언어제어능력을 중시한다. 언어지식과 단어를 중시하던 기존 시험과는 달리 新 토플시험은 언어 환경, 정보, 관점표현 및 언어제어능력을 중시한다. 즉, 언어를 이해하고 분석한 뒤 정보를 처리하고, 이해(利害)를 따져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다. 말하기와 쓰기영역에 있는 독립형 문항은 응시자에게 주제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새롭게 첨가된 통합형 문항에서는 정보를 읽고 들은 후, 주어진 조건에 따라 의견을 표현하도록 했다.

3. 종합운영능력을 중시한다. 새로운 시험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영역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말하기와 쓰기영역에 있는 듣고 읽기, 듣고 쓰기 문제를 통해 실전에서 이해능력과 정보분석능력 및 정보처리능력 등을 테스트한다. 또한 통합형 말하기문제 4항과 통합형 쓰기문제 1항에 듣기와 읽기가 추가됐기 때문에, 듣거나 읽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거나 자칫 잊어버린다면, 말하기에서 언어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4. 언어의 현실성과 연관성을 중시한다. 새로워진 시험은 실제 캠퍼스에서 이용되는 대화와 강의내용을 소재로 하고 있다. 일부 내용만을 담았던 기존의 짧은 대화와 읽기문장에 비하면 언어의 현실성과 연관성이 확보된 셈이다. 新 토플시험은 단문(문법, 어휘영역)과 짧은 대화(듣기영역)가 사라지고, 읽기문장이 3편으로 줄어드는 대신 문장을 700자 내외로 확대해, 문장이 더욱 완전성과 연관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응시자에게는 정보의 이해, 흡수능력에 커다란 도전이 될 것이다.

5. 평점기준의 변화. 新 토플시험은 언어요소만으로 틀린 개수를 감점하는 게 아니라, 주관식을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따라서 표현능력, 언어능력, 사고의 연관성, 정확성여부 등으로 말하기와 쓰기 답안의 전체적인 수준을 평가할 것이다.

(웨이즈민(魏子敏), 2005년 12월 7일자, 文匯報)

9) 사란진(沙蘭鎮) 종신초등학교(中心小學)

보도내용 : ning안시 사란진 홍수 사망자 91명으로 늘어

6월 12일 9시 30분 현재까지 헤이룽장(黑龍江)성 ning안(寧安)시 사란(沙蘭)진을 덮친 홍수가 학생 87명과 주민 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밖에도 학생 17명, 유아 1명, 교사 1명, 공무원 1명, 주민 5명이 인근 병원으로 호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장궈지(張左己) 헤이룽장 성장은 피해현장에서 구조작업을 전두지휘하고 있다. 실종자 수색작업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수해 주민들의 복구작업도 전개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수업도 빠르게 재개되고 있으며, 침수된 농가의 소득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상류지역과 댐 주변 감독 및 강수량 측정도 강화되고 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란진 중신초등학교를 찾아가보니 운동장에는 지게차 세 대가 진흙을 나르고 있었고, 경찰 수십 명이 홍수가 휩쓸고 간 목재와 집기를 처리하고 있었다. 또 경찰 몇 팀이 교정 곳곳을 살피며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었으며, 사란진 중심교각에는 굴착기 한 대가 물길을 막고 있는 나뭇가지들과 진흙을 치우고 있었다.

(발췌 : 2005년 6월 12일자 新華社)

10) 허웨이팡(賀衛方)

우수 칼럼 : 허웨이팡들이 분노한 이유

지난 6월 24일, 베이징대학(北京大學) 법학대학 허웨이팡(賀衛方) 교수가 인터넷에 대학원생모집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대학원생 모집 중단사유를 이렇게 밝혔다. “현행 법학대학원생 시험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 시험지 두 장에 10개가 넘는 과목이 포함된 것이다. 응시생의 전체적인 능력을 테스트하겠다는 명목으로 실행되는 이런 방식은 사실상 시험이 갖춰야 할 전문성을 저해하고 있다”.

대학원생 입학시험제도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단번에 모집을 중단한 걸 보면, 허 교수의 성격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우연의 일치인지 얼마 전 같은 대학 법학대학 천루이화(陳瑞華) 교수도 대학원시험에 대해 이런 성명을 내놨다. 성명에서 그는 “위풍당당한 베이징대학 법학대학 대학원시험에서 우리 대학의 우수한 학생들은 문밖으로 밀려나고, 타교 출신들에게만 2차 시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것은 법학대학의 비애이며, 베이징대학의 실수이다”라고 지적했다.

위 사건에 대한 비난여론도 적지 않지만, 대학원시험과 교육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사실상 대학원 교육에 대한 회의는 줄곧 제기돼온 문제이다. 위의 사건들이 개인적인 성향이 농후한 건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축적된 문제들이 가져온 필연의 결과는 아닌가 싶다. 대학원 응시생이 무슨 시험을 봐야 하고, 학위를 취득하려면 또 어떤 시험을 봐야하는지는 기술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하지만 저면에 감춰진 심층적인 문제는 더욱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왕샤오둥(汪曉東), 2005년 6월 29일자 人民日報)

제5장 관광부문 유행어

서두 : 출항을 앞둔 “타이완 여행“

① “대륙 타이완여행 조사단”이 타이완에 도착하는 순간, 우리는 마치 “타이완 관광”의 날이 가까워지는 발소리를 들은 것만 같았다. ② “선저우³⁾ 문화여행”을 다녀온 “투사” 리아오(李敖)는 귀향길에서 문인다운 온화한 면모를 보였다. ③ “홍콩 디즈니랜드” 테마파크는 홍콩 경제에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주었다. ④ “저가항공”서비스가 관광경제의 다양화, 개성화에 새로운 모델을 마련했다. ⑤ “전자 가이드”의 등장이 여행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만끽할 수 있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⑥ “대장금 테마파크”가 《대장금》 열풍을 타고 한국의 떠오르는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⑦ 2005년 중국에서는 “관광지 요금인상”과 인상조짐이 끊임없이 대두되었다. ⑧ 만리장성 곳곳에 상처가 쌓여가고 있다. “장성보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관광부문 유행어 : 타이완 관광(赴臺旅遊), 홍콩 디즈니랜드(香港迪士尼), 저가항공(廉價航空), 만리장성보호(長城保護), 선저우 문화여행(神州文化之旅), 호화 해외여행(深度游), 관광지 요금인상(景點漲價), 전자 가이드(電子導游), 대장금 테마파크(長今村), 관광금지(休游)

1) 타이완 관광(赴臺旅遊)

보도내용 : 타이완 관광, 이제 東風만 기다려

대륙 타이완 관광 조사단이 타이완으로의 여정을 원만히 마치고, 지난 6일 오후 5시 타이베이를 떠났다.

대륙 타이완 관광 조사단 서기장이자 중국 광광협회 류커즈(劉克智) 상임이사는 전화상으로 중국 광광협회 사오치웨이(邵琪偉)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타이완 관광 조사단 일행 65명이 6일 마카오 특별행정구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타이완

3) 중국의 옛 이름

관광 조사단 단장이자 중국 관광협회 회장 사오치웨이는 타이완을 떠나며, 대륙 주민들이 타이완을 관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이미 갖추어졌다고 말했다. 대륙 타이완 관광 조사단은 9일 간 동서남북을 오가며 타이완의 아름다움과 운치를 음미했으며, 풍부한 관광자원과 완벽한 관광시설, 관광안전시스템 및 양질의 서비스수준을 상세히 이해하게 됐다. 그 결과 타이완은 대륙 주민이 관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오 회장은 또 대륙 주민들의 타이완 관광이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두 지역 업계가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발췌 : 2005년 11월 7일자 新華社)

2) 홍콩 디즈니랜드(香港迪士尼)

보도내용 : 홍콩 디즈니랜드 국내외 관광객에게 첫 선보여

홍콩 디즈니랜드(香港迪士尼)가 지난 12일 오후 1시 국내외의 관심 속에 첫 손님을 맞이했다. 이날 디즈니랜드는 하루 동안 미리 입장표를 예매한 1만 6천 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맞이했다.

(발췌 : 2005년 9월 12일자 新華社)

3) 저가항공(廉價航空)

보도내용 : “저가” 춘치우(春秋)항공 8시 50분 처녀비행

오늘 오전 8시 50분경 “3S”라는 마크가 눈에 띄는 A320-214편이 홍차오(虹橋) 공항을 출발해 상하이에서 옌타이(煙臺)로의 비행을 시작했다. 이렇게 국내 최초의 저가 항공사인 춘치우(春秋)항공은 순조로운 처녀비행을 시작했다. 180명의 탑승자 중 13명은 인터넷에서 199위안짜리 초저가 티켓을 “낙아첸” 행운아들이다.

(발췌 : 2005년 7월 18일자 新民晚報)

4) 장성보호(長城保護)

보도내용 : “여기 왔다 감”으로 상처투성인 만리장성

열혈 관광객들이 남긴 “여기 왔다 감” 등의 글자로 만리장성이 상처투성이로 변하고 있다. 중국장성학회와 빠다링(八達嶺)장성 관리위원회는 최근 장벽낙서 없애기 캠페인을 제기하고, 전 사회적으로 장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리장성을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빠다링 장성에는 글자 없는 벽돌이 없을 정도다”. 중국장성학회 동웨이웨이(董輝會) 부회장은 이같이 통탄했다. 그는 1998년 외국 원수 한 분과 빠다링 장성을 찾았던 때를 회상하며 “원수님의 따님이 호기심어린 눈으로 장벽에 새겨진 글자를 만졌을 때, 원수님께 장성에 대해 소개할 생각은커녕, 장벽에 왜 이 글자들이 새겨져있냐고 묻는다면 이 국가적인 망신을 어떻게 대처할까만을 노심초사했었다”며 그 장면은 아직도 “마음속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고 토로했다.

관광객들이 남긴 글들은 보통 무딘 도구로 새기거나 수정액, 페인트 등으로 칠해진 것들이었다. 그리고 깊은 것들은 약 0.5cm였으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내용상 제일 먼저 새겨진 것은 50년대 것이었다. 최근 들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얼마 전에도 한 자원봉사자가 모 장성에서 글자를 새기고 있는 관광객들을 적발해 저지한 적이 있다.

동 부회장은 장벽낙서 없애기 활동은 장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낙서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 활동이 장성과 문화재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발췌 : 2005년 11월 5일자 新華社)

5) 선저우 문화여행(神州文化之旅)

보도내용 : 리아오 56년 만에 대륙땅 밟아

저명한 문화인사인 리아오(李敖)가 지난 19일 오전 타이베이를 떠나 홍콩을 거쳐 같은 날 오후 베이징에 도착했다. 그는 이렇게 10일간의 “선저우 문화여행(神州文化之旅)”길에 올랐다.

이로서 그는 56년 만에 대륙땅을 밟게 됐다.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한 그는 “50여 년 전 혼자 기차로 텐진(天津)에 가서 상하이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다. 당시 기차 창밖에 펼쳐진 광경은 모두 전쟁의 불길로 까맣게 타버린 황무지뿐이었다”고 회상하고 “그런 마음으로 베이징을 떠났던 내가 마침내 다시 돌아왔다”고 감회를 밝혔다.

그는 또 베이징 곳곳을 다 둘러보고 싶으며, 가장 생각나는 음식으로 베이징 콩즙을 꼽았다.

이번 여정에서 그는 베이징대학 강연을 가진 뒤, 칭화대학(清華大學)과 푸단대학(復旦大學)에서 강좌와 교수, 학생과의 좌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출발에 앞서 그는 이 세 가지 일정이 이번 여정의 “핵심”이라며, 추억여행이 “주요 목적”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또 베이징에 있는 동안 고궁, 파웬스(法源寺) 등을 참관하고, 학우들과 동창회도 가질 계획이다. 베이징 일정을 마친 그는 상하이로 방문한 뒤, 28일 “선저우 문화여행”을 마치고 홍콩을 거쳐 30일 타이완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발췌 : 2005년 9월 9일자 新華社)

6) 호화 해외여행(深度游)

보도내용 : 관광업계 호화 해외여행으로 상류층 고객몰이 한창

8천 위안짜리 말레이시아 호화여행, 인도 요가수행여행……. 어제 중국 국제여행사(CITS)는 최근 새로운 비즈니스 배낭여행상품 시리즈를 기획해, 비즈니스 배낭여행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밝혔다. 그중에서도 호화 해외여행상품(深度游)이 각광을 받고 있다.

광둥 국제여행사(廣東國旅) 비즈니스여행 분점은 이번에 선보인 배낭여행상품은 호화, 일반, 절약형 등 세 가지로 나뉘며, 학생과 같은 소비자를 겨냥한 베트남, 싱가포르 체험상품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류층 고객을 겨냥한 호화 배낭여행상품이라며 이런 상품은 기존상품보다 “업그레이드된” 가격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런 호화 상품으로는 8천 위안 상당의 “말레이시아 천국여행”, 7천 위안 상당의 “인도 요가여행”, 3천 위안 상당의 “태국 골프패키지” 등이 있다.

(발췌 : 2005년 12월 21일자 南方日報)

7) 관광지 요금인상(景點漲價)

보도내용 : 다시 몰아치는 관광지 입장료 인상 열풍

무한(武漢)시의 일부 여행사들은 얼마 전 세계문화유산인 우당산(武當山)과 세계자연유산인 신농자(神農架)의 입장료가 인상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번 달 중순부터 우당산 관광지구 입장료가 70위안에서 110위안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도교협회(道教協會)가 관리하는 우당산 최고봉인 진당(金頂) 입장료도 다년간 가격변동이 없다가 이번에 10위안에서 20위안으로 인상된다.

신농자 산림지구 역시 마찬가지다. 다음달 1일부터 신농자정경구(神農架頂景區)는 60위안에서 100위안으로, 옌톈풍경구(燕天風景區)는 30위안에서 60위안으로, 신농탄(神農壇)은 20위안에서 30위안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두 곳 모두 이미 물가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은 상태다.

이밖에도 입장료를 인상하거나 인상할 예정인 관광지가 적지 않다. 황산(黃山), 장자계(張家界) 우렁원(武陵源), 광둥 단샤산(丹霞山), 지우자이거우(九寨溝), 황룡풍경구(黃龍風景區) 등도 모두 이미 입장료를 인상했거나, 조만간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관광지 입장료 인상열풍은 작년 말부터 시작됐다. 베이징의 고궁박물관 등 세계문화유산 여섯 곳이 잇따라 인상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들은 인상사유로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증진, 자금부족 보충, 과도한 관람객들의 흐름을 막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입장료를 인상했거나 인상할 예정인 다른 관광지들도 거의 《세계유산명단》에 오른 곳들이며, 이들의 인상사유도 위와 비슷하다.

(발췌 : 2005년 3월 22일 文匯報)

8) 전자가이드(電子導游)

보도내용 : 더욱 새로워진 전자가이드

고궁 입구에 서면 누군가 대신 노선을 설계해주고, 매 노선마다 걸리는 시간까지 계산해준다. 또 가는 곳마다 컷가에 그곳에 얹힌 사연과 역사적 배경이 울려 퍼진다. 이것이 바로 전자가이드(電子導游)의 장점이다.

최근 일부 관광지에서는 여행객들을 위해 공용 터치스크린식 전자가이드장비를 마련했다. 이 기계를 통해 여행객들은 그곳과 관련된 지식을 얻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인용 전자가이드도 임대하고 있다. 이 기계는 최첨단 디지털처리기술을 이용해 녹음된 음성 아날로그신호를 코드로 바꿔 압축, 저장한다. 그리고 장착된 칩이 이 정보를 해독, 확대해 고품질의

가청주파수신호로 바꾸기 때문에 이어폰으로도 들을 수 있다.

또 가이드가 사용하는 전자설명시스템은 송신기로 가이드의 음성 설명을 밖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수신기만 있으면 쉽게 들을 수 있다. 이 시스템만 있으면 “속삭이는 듯한” 음성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정확히 들을 수 있어, 여행객들은 여행효과를 높일 수 있고, 가이드들은 노고도 줄일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발췌 : 2005년 4월 30일 新民晚報)

9) 대장금 테마파크(長今村)

보도내용 : 《대장금》 속으로 떠나는 여행

서울 중심가에서 2시간 가까이 지하철을 타고, 다시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다보면 한국 경기도 양주시 MBC 문화동산에 마련된 대장금 테마파크가 나온다. 대장금 팬들은 대다수가 성지순례를 하는 기분으로 이곳을 찾기 때문에 그 감회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들은 입구에 마련된 주연 배우들의 핸드프린팅만 봐도 소리를 지르며 어쩔 줄 몰라 한다. 하지만 막상 테마파크에 들어서면 웅장했던 TV속 궁전에 비해, 테마파크는 마치 초소형 축소판을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가령 극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퇴선간은 10평방미터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대전은 세로길이가 몇 미터에 불과하다. 그리고 왕이 앉던 왕좌와 입구와의 거리도 10보 남짓이다. 처소사이에 펼쳐졌던 드넓은 공터도 사실 서로 밀접히 연결돼있었다. 예를 들어 최상궁이 있던 수라간은 약재고와 이웃사촌이었으며, 장금이의 어머니와 한상궁이 함께 감식초를 묻은 정자 옆은 놀랍게도 고문을 하던 형방이었다.

축소판이라고 해서 성의가 없는 것이거나, 공간이 협소하다고 해서 건성건성 만든 것은 아니다. 《대장금》 제작진들이 이 우렁이 속 같은 세상에서 심금을 울리는 작품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것은 사실적인 화면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여행객들에게 드라마 속에 있는 것 같은 사실감을 전해주고 있다.

(발췌 : 2005년 10월 1일자 新民晚報)

10) 관광금지(休游)

우수칼럼 : 신농자 최초로 겨울철 관광금지

여행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야생식물의 생태환경을 재생시키기 위해, 신농자(神農架) 국가급 자연보호구는 12월 9일부터 주요 입구에 동절기 관광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여행객들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이는 1992년 신농자를 여행객들에게 개방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겨울철” 관광금지 조치이다.

신화사(新華社)에 따르면 신농자 국가급 자연보호구관리국 라오밍야오(廖明堯) 국장은 이 조치는 신농딩(神農頂) 핵심 생태구를 대상으로 2006년 1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실행될 예정이며, 3월 26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여행객들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앞으로 매년 실시될 계획이다.

신농딩 풍경구관리소 황더핑(黃德平) 주임은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첫째, 여행객들의 안전을 확보한다. 둘째, 야생동물 생태환경을 회복한다. 특히 금사후(金絲猴, 금빛털 원숭이)를 증식시킨다. 셋째, 산림 방화작업을 강화한다. 넷째, 풍경구의 인프라시설을 보호한다. 다섯째, 이 기간을 이용해 직원교육을 강화한다. 뒤이어 그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우선 신농딩 풍경구에는 중부지역 최고봉인 신정봉(神頂峰)이 자리하고 있다. 신정봉은 해발 3,105미터로, 이 시기가 되면 결빙이 시작되고 적설량은 20~30cm에 이른다. 때문에 차량을 통제하지 않으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이곳에 있는 명소는 가깝게는 8km, 멀게는 29km나 떨어져 있어 도보로 갈 경우 거리가 너무 먼 데다, 제대로 된 숙박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다. 따라서 초행길이라면 길에 익숙하지 않을뿐더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쉽게 방향을 잃을 수 있다.

둘째, 이 풍경구는 후베이(湖北) 신농자 국가급 자연보호구로, 최근 들어 동식물의 군체와 수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변에는 금사후의 주요 서식지와 활동지가 있어, 교배기인 겨울철에 여행객들이 출입한다면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셋째, 풍경구에는 방대한 고산초원과 원시산림이 조성돼있어 건조한 겨울철에는 더 많은 화재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최근 십여 년 간 대형화제가 발생한 적은 없지만, 출입을 금지해 혹시 터질지 모르는 불씨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이 기간을 이용하면 도로, 난간 등의 인프라를 점검하고, 직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발췌 : 2005년 12월 20일자 北京青年報)

제6장 인터넷 통신부문 유행어

서두 : 떠오르는 휴대폰 부가서비스

① 2005년, 중국에는 “모바일 TV” 이용자가 15만에 이르렀으며, 상하이에서는 모두 2만 명이 휴대폰으로 TV를 즐기고 있다. ② 저장(浙江), 광둥(廣東) 등지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모바일 페이퍼”가 앞으로의 가능성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③ “3C통합”을 주제로 열린 “중국국제소비전자제품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들이 각자 준비한 “디지털 홈”계획을 선보여, 빌 게이츠식 첨단 호화주택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④ “팟 캐스트”, “VLOG”가 인터넷에서 매력을 과시하며 인터넷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⑤ “바이두”가 나스닥에서 다시금 “중국신화”를 창조했다.

인터넷 통신부문 유행어 : 모바일 TV(手機電視), 모바일 페이퍼(手機報), 디지털 홈(數字家庭), 팟 캐스트(播客), 3C통합(3C融合), IPTV(IP電視), 디지털 미디어(數字媒體), 바이두 상장(百度上市), VLOG(沃客)

1) 모바일 TV(手機電視)

우수칼럼 : 상하이 이동통신, “모바일 TV”시장에 도전장

설 전날 밤 숨 막히는 축구생중계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갑작스런 회의소식에 휴대폰을 들고 회사로 향했다. 그리곤 회사로 가는 차 안에서 휴대폰화면을 뚫어 쳐다보며 혼자 소곤거리기다가는 때론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쉰다. “정신병자”라고 수군대는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 않고, 그는 오히려 “중국팀이 이겼다!”라고 외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싸며 “어떻게 골인했는데요?”라고 물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TV폰이 가져다줄 가장 짜릿한 순간이다.

최근 상하이 이동통신은 “모바일 TV”영역에 도전하겠다고 발표하고, 선발된 고객 500명에게 무료 시범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사업은 소니에릭슨 등 세계적인 휴대폰업체의 전폭적인 지지아래 4개의 생방송 프로그램과 뉴스, 체육, 경제, 오락 등 10개의 주문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3G시대에 발맞춰 새

롭게 뜨고 있는 모바일 TV사업에 바탕이 될 만한 상업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그 목표이다. 얼마 전 상하이 련통(聯通)이 먼저 “모바일 TV”영역에 도전한 데다, 샤오링통(小靈通)도 올해 안에 선보이겠다고 밝힘에 따라 뒤늦은 감은 있지만 휴대폰 TV시장에 “불만한 게임”이 시작됐음을 알렸다.

(상명원(向明文), 발취 : 2005년 2월 8일자 新民晚報)

2) 모바일 페이퍼(手機報)

보도내용 : “휴대폰 신문”, 참신한 뉴스 제공

최근 들어 광둥(廣東) 휴대폰 이용자들에게 신문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늘었다. 바로 모바일 페이퍼(手機報紙)이다. 요즘 광둥의 일부 언론과 운영업체가 손을 잡고 선보인 광둥 최초의 “모바일 페이퍼”가 휴대폰으로 독자들에게 매일 현지 신문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개통 후 각계의 반응도 가지각색이다. 업체 측은 하루 평균 방문횟수가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80%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페이퍼는 휴대폰을 매개로 신문과 통신업체,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완성된 새로운 소식들을 전달하는 서비스이다. 차세대 정보제공서비스로서 모바일 페이퍼는 기존 뉴스 제공업체의 뉴스 플랫폼을 바탕으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독특한 서비스와 실시간 동영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언론에 보도된 이용자들의 반응에는 전통적인 신문과 비교했을 때, “모바일 페이퍼”의 가장 큰 장점은 독자가 편집자와 실시간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독자들은 이제 수시로 신문을 보며 타인과 공유도 하고, 느낌이나 의견을 무선 신문 플랫폼으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무선인터넷 속도를 업그레이드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발취 : 2005년 8월 3일자 人民日報)

3) 디지털 홈(數字家庭)

보도내용 : 지능형 “홈 관리자”만 있으면 누릴 수 있는 편안한 생활

언제 어디서든 리모컨 버튼만 누르면 바로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을 컨트롤할 수 있고, 혼자 있는 노인과 자녀의 상태도 확인할 수 있다. 마술이 아니다. 현대 과학기술이 탄생시킨 지능형 “홈 관리자”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다. 요즘 스지따다오(世紀大道) 211번지 상하이 정보빌딩 5층에 설치된 “디지털 홈”이 여러 가지

“기술”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

가전제품도 버튼 하나면 OK

차가운 겨울 사람들은 누구나 현관문을 열자마자 따스함을 느끼고 싶어 한다. “디지털 홈” 이용자라면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퇴근 전 사무실에서 “스마트 e-홈(智慧e家)” 홈페이지에 들어가 “네트워크 홈 관리자”로 히터를 작동시키기만 하면 집에 도착하는 순간 따스한 온기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이다. 정신없이 출근하다 미처 끄지 못한 전등이 있다면, 그것 역시 인터넷에서 켜진 전등을 찾아 가볍게 눌러주면 모든 게 해결된다.

“디지털 홈”에서는 주방에 있는 냉장고, 환풍기, 전자레인지부터 화장실에 있는 세탁기, 샤워기는 물론 각 방에 있는 전화, 컴퓨터, 오디오까지 모두 네트워크 가전제품이어서 이용자는 천리 밖에서라도 언제든지 이것들을 “켜거나 끌” 수 있다. 이런 네트워크 가전제품들은 게이트웨이를 넘나들며 책만한 크기의 상자의 통제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통제센터의 지능형 “홈 관리자”라고 불리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가 기계들의 상태를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네트워크 가전제품에는 모두 액정모니터가 달려있다.

“보초병”이 지켜주는 안전한 가정

현재 상하이에는 1백 가구 이상이 “디지털 홈”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가장 선호하는 “홈 관리자”기능은 중 하나가 바로 안전한 “보초병”을 세우는 것이다. 만약 출장으로 며칠 혹은 몇 개월간 집을 비워야한다면 어떨까? 걱정할 것 없다. 외출 전 각종 보안시스템을 켜놓기만 하면, 연기경보나 화재경보 발생 시 보안시스템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독거노인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도 준비돼있다. 360도 회전 가능한 “메가 아이스(全球眼)”감시시스템은 자녀들이 24시간 노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디지털 홈” 이용자들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 플랫폼을 이용해 휴대폰으로 정해진 시간에 가족의 화면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문밖을 나서지 않아도 카드 하나면 공과금도 척척

“디지털 홈” 전화에는 특수한 기능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자이(家家易)”의 포스(POS) 지불결제단말기이다. 즉, 집에서도 신용카드만 긁으면 수도세, 전기세, 통신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매달 2위안밖에 하지 않아, 이 기능을 갖춘 “디지털 홈”을 선택하는 이용자가 많은 편이다. 특히

요금을 낼 때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했던 교외지역 주민들은 이로서 편리함은 물론 교통비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많은 “디지털 홈”들은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를 가정에 도입하고, 보고 싶은 영화나 TV를 신청하면 수시로 재방송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홈 네트워크 통제센터덕분에 “홈 관리자”는 또 가장이 자녀의 인터넷사용과 시간을 감시할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일단 유해사이트에 접속하면 바로 자동적으로 차단되게 돼있다.

1천 가구에게 체험기회 제공

차이나텔레콤 리상그룹(中國電信理想集團)은 이미 “디지털 홈”시스템 연구개발에 2천여만위안을 투자하고, 내년부터 상하이에서 1천 가구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광대역이 설치된 가정을 대상으로 “디지털 홈”의 편리함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거의 무료로 이뤄지며, 속도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고객들은 약간의 추가요금만으로도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선보일 “메뉴”는 통신과 홈 엔터테인먼트, 보안, 가전제품 등 4가지이며, 고객들은 취향에 따라 메뉴를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이밖에도 이 그룹은 학교, 병원, 은행 등과 협력해, 가정교육, 의료, 재정관리 등 완벽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미래 홈 네트워크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발췌 2005년 12월 8일자 新民日報)

4) 팟 캐스트(播客)

보도내용 : 오늘 “팟 캐스트”하셨어요?

중국 최초의 팟 캐스트대회가 지난 달 상하이에서 개최됐다. 팟 캐스트(播客, Pod cast)는 출시된 지 1년도 안 됐지만 어느새 온라인 최고의 핫 아이템 중 하나로 떠올랐으며, 미국에서는 벌써 백만 명 가까이 팟 캐스트를 이용하고 있다. 인기몰이중인 팟 캐스트 열풍을 타고 미국의 모 팟 캐스트 사이트는 8백만 달러 규모의 벤처캐피털펀드를 투자받았다. 전 세계적인 뮤직플레이어 아이팟도 팟 캐스트와 손잡고 iTunes을 첨가시켜 원하는 팟 캐스트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했으며, 고객들은 아이팟을 통해 이것들을 감상할 수 있다.

팟 캐스트가 신속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지금, 기존 라디오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전문가들은 흥미와 아이디어로 가득한 팟 캐스트가 앞으로 기존 라디오에 풍성함을 더해줄 것이며, 기존 라디오 역시 팟 캐스트에 새로운 발전무대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두 가지가 융합된다는 것은 미디어계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앙인민라디오방송국(CNR), 상하이동방라디오방송국 등도 이미 팟 캐스트를 위한 코너를 마련했다.

팟 캐스트를 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저 PC 1대와 마이크 1대, 사운드 에디터 프로그램 1개만 갖추고, 녹음된 프로그램을 관련 사이트에 올리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청취자들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원하는 팟 캐스트를 선택해 감상할 수 있다.

(발췌 : 2005년 9월 23일자 新民日報)

5) 3C통합(3C融合)

보도내용 : 3C통합이 대세다

“다가올 디지털 홈 세상은 3C(소비류 가전제품, 컴퓨터, 통신)통합이 대세다”. 이것은 “2005 중국국제소비전자제품 박람회(SINOCES)”에 참가한 바이어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그러나 3C통합 주도권을 놓고 가전제품과 IT 양대 진영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TV의 PC화와 PC의 엔터테인먼트화는 이들의 주요 전략으로 작용하고 있다.

컬러TV와 컴퓨터 중 앞으로 누가 디지털 홈의 중심에 설 것인가? 오랜 기간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문제를 놓고 선천적인 기술은 있지만 첨단기술에서 취약점을 보이고 있는 PC진영은 컬러TV진영과 미래 디지털 홈의 중심을 차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발췌 : 2005년 7월 4일자 廣州日報)

6) IPTV(IP電視)

보도내용 : 2005년, IPTV가 뜬다.

IPTV가 중국 국내 인터넷시장을 빠르게 점령하고 있다.

현재 중국 TV사용자는 3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셋톱박스만 있으면 TV시청자들도 광대역 사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0%만 전환에 성공하더라도 6천만 명의 IPTV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2004년 말까

지 중국 광대역 인터넷 사용자가 4,280만 명에 이르렀으며, 2010년까지는 1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들도 IPTV의 잠재 소비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막강한 시장전망성 때문에 IPTV시장이 2005년에 들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관련업체들이 IPTV의 수익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IPTV운영모델 모색과 내용결핍 해결, 디지털 판권보호, 인터넷의 고급화, 합리적인 IPTV 단말기모델, IPTV 업체들의 협력 및 이익분배 등의 문제가 시급한 상태다. 이런 문제들은 직접적으로 IPTV 발전을 제약하고 있으며, 현재 IPTV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 난관이기도 하다.

(발췌 : 2006년 6월 13일자 解放日報)

7) 디지털 미디어(數字媒體)

보도내용 : 디지털 미디어만이 살길이다

“현재 우리는 아날로그세계에서 디지털세계로의 전환점에 서있다”. IBM 디지털미디어 사업부 앤더슨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디지털 미디어는 발전할 수 있는 범위가 방대한 분야이다. 그래서 인터넷, 휴대폰, 모바일 TV, 디지털 TV 등 첨단 기술이 사용된 모든 정보방송 수단을 섭렵할 수 있다. 생활리듬이 가속화되고 정보화 사회라는 대세가 각광받는 지금, 이 신홍산업을 날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IBM은 2007년까지 광대역 소비시장이 지금보다 37%증가된 1천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리고 2009년까지 주문형 영화서비스 같은 차별화된 인터넷 채널서비스가 2억 달에 못 미치는 지금에 비해 79억 달러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게 되면 IPTV와 주문형 비디오서비스(VOD) 등을 포함해 채널서비스와 음악 다운로드, 인터넷 게임 및 기타 광대역 엔터테인먼트가 가져올 수익은 작년의 123억 달러에서 360억 달러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중국 정보화 전문가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디지털산업의 연간 성장률은 33%로 가장 활발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미국 디지털산업의 연간 생산량은 7천억 달러에 이르러 미국 최대 수출산업으로 떠올랐으며, 연간 성장률은 40%에 이르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디지털산업 연간생산량은 4,300

억 유로이며, 일본의 디지털 미디어산업은 1,600억 달러로 자동차산업에 이어 2위를, 한국 디지털 미디어산업은 벌써 자동차산업을 누르고 최대 산업으로 성장했다. 한국 IT산업진흥원은 디지털산업시장이 매년 38.7%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그 규모가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는 신문, TV, 라디오 등 전통적인 미디어에게는 “약탈자”일 수밖에 없다. 고객 확보와 광고는 이들이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최대 이슈이다. 따라서 생산량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언론은 현재 고객유실, 수입 감소, 영향력 쇠퇴 등의 난관에 봉착해있다.

중국 인민대학 여론연구소 위귀밍(喻國明) 소장은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미디어 산업발전논리로 운영체제, 운영구조, 수익모델을 만들어간다면, 전통적인 미디어도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고 예전과 다른 발전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기술은 이미 전통적인 언론의 장벽을 허물었기 때문에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의 상품도 이런 디지털 무대에서 통합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언론간의 결합과 전통 언론과 신형 미디어의 융합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발췌 : 2005년 8월 27일자 解放日報)

8) 바이두 상장(百度上市)

보도내용 : 바이두 나스닥서 “중국신화” 창조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최대의 인터넷 검색엔진 바이두(百度)가 상장하자마자 “중국신화”를 창조했다. 상장 첫 날 최대 상승폭이 450%에 달하며, 미국 역사상 상장 당일 수익이 가장 컸던 10대 주식으로 기록된 것이다.

미국 동부시각 8월 5일, 바이두는 순로롭게 나스닥에 상장되면서 나스닥에 상장된 22번째 중국 주식이 됐다. 상장 첫날, 바이두 주식가격은 발행가 27달러 보다 450% 오른 151.21달러까지 상승했으며, 발행가에서 354% 오른 122.54달러로 마감됐다. 이렇게 엄청난 상승폭 덕분에 바이두는 미국 역사상 상장 당일 수익이 가장 높았던 10대 주식이 됐으며, 1999년 이후 상장당일 수익이 가장 큰 회사로 기록됐다. 이런 대박은 미국에 상장된 외국기업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바이두는 상장된 이후 많은 미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발행가는 19~21달러를 유지하다 27달러까지 올라갔다. 거래량도 370만주에서 404만주로 올라 모두 1억 9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9) VLOG(沃客)

보도내용 : 신흥 인터넷 일기 VLOG

요즘 신흥 인터넷 동영상일기인 동영상 블로그(video blog 또는 vlog)가 소리 없이 떠오르고 있다. VLOG는 온라인에서 동영상으로 인터넷일기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기술발전 가속화

VLOG의 주제는 아주 광범위하다. 우주에 대해 심각한 토론을 할 수도 있고, 자질구레한 일상생활을 다룰 수도 있다. 최근에는 채널에 따라 인도 뭍베이 “여행기”나 필리핀 여성들의 “생활체험”, 혹은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주전자를 씻는 여성의 모습까지 VLOG에 올라오고 있다.

VLOG가 이렇게 사랑받는 것은 카메라의 가격하락과 더욱 편리해진 비디오 편집기, 광대역 다운로드 속도의 업그레이드 덕분이다.

애플사가 올 10월 선보인 미디어 플레이어 아이팟(iPdo)도 다운로드와 작은 동영상일기를 올리는데 용이해 VLOG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정보독점 타파

VLOG의 탄생은 기존 미디어그룹의 정보독점을 타파하고, 새로운 뉴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VLOG사이트 로켓붐(RocketBoom)의 운영자이자 앵커인 아만다 쿵돈은 “사람들이 평범한 일반인들에게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미 겉만 화려한 내용에는 싫증을 느꼈으며, 보다 사실적인 얘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VLOG 사이트를 운영 중인 스티브 가필드가 만든 동영상 프로그램에는 아내와 하얀 눈으로 뒤덮인 보스턴 거리를 거닐며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VLOG문화를 얘기하는 모습도 담겨있다. 직접 카메라를 들고 있는 그는 “TV와 다르다는 이유로 인터넷 동영상일기가 고리타분하다는 사람도 있지만, VLOG는 근본적으로 TV 프로그램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통 사람들의 생활 속

에서 평범히 스쳐지나가는 얘기를 다룬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VLOG의 흥행은 인터넷과 TV의 융합이라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모든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적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발췌 : 2005년 12월 20일 新華社)

10) 구글 어스(Google 地球)

세계적인 검색엔진 구글이 올 상반기 획기적인 이미지 검색 서비스인 “구글 어스(Google 地球, Google Earth)를 선보였다. 하지만 이 서비스 때문에 구글은 유례없는 논쟁에 휩싸였다.

지난 12월 28일, 이스라엘은 정부 홈페이지에서 전 세계적으로 연쇄반응을 일으킬만한 뉴스를 보도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고정밀도 위성사진이 테러분자와 “무장세력”에게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글은 이스라엘 도시사진과 목표물이 될 수 있는 사진들의 정밀도를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로 인해 다른 국가들도 구글측에 비슷한 요구를 해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대변인은 구글 어스가 제공하는 지도는 대다수가 인터넷에서 공개되고 있는 지도이며, 그중에는 미국 미국지질학회(GSA)와 미국 내무부 등 연방정부의 것도 있다고 밝혔다. 즉, 구글이 이 서비스를 중단하더라도 관심만 있다면 언제든지 인터넷에서 이런 사진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췌 : 2005년 12월 28일, 北京青年報)